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 'Korea Fantasy'가 필라델피아에 울려퍼졌다.<사진:미주한국일보, 7면에 계속>

회원 정보와 이메일

지금 현재 우편배달이 가능한 회원 주소가 6,200여개 있습니다. 제13대 새 회기를 시작하면서 전산화를 위해 회원 주소와 정보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동창회보인 7월호와 함께 인쇄소에 보낸 수신자 리스트 중 400여명의 주소가 '배달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지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주소 중 우선 중복되거나 우편번호가 네자리라든가 여섯자리 등, 잘못된 우편주소를 수작업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을 하다보니 오류가 생겨 회보배달에 차질이 생기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문들이 보내 주시는 체크와 서류로 주소를 확인내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전회기에서 년 1,100명에 불과했고,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도 9월 1일 현재 200여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회원들에게 회보가 제대로 배달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비영

리 BULK RATE 3종 우편 배달이 안되며 반송이 가능한 1종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동창회원 데이터를 관리하다보니 동문부부가 450커플이 넘네요. 그래서 회비를 두 분이 내시면 매달 두 부를 배달해 드립니다. 이메일이 등록된 동문수는 현재 11% 정도입니다.

요즘 세상은 인터넷, 이메일, Text 메시지, 카톡 등을 이용해 실시간 검색 또는 연락을 주고 받는 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이런 Social Networking이 빠르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메일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으나 아직 이메일 주소가 없는 동문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오래 들여다보는 게 눈에도 해롭고, 팔 다리 목 운동부족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예 이메일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창회 운영과 동창회보 발행을 위해 우리 매달 \$12,000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보보다는 Website을 더욱 이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메일 주소의 등록이 시급합니다. 각 지부의 임원님들과 회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11%에서 30%까지 이메일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시면서 주소, 전화 번호, 학과, 학번을 이메일주소와 함께 꼭 보내주세요. 동창회 본부 이메일은 general@snuua.org 입니다. <미주동창회본부>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1	PA 매스터 코랄 음악회 / Email 주소 부탁	18-19	칼럼: 김인중/원미량/김선영/이상봉
2	총장 인터뷰 / Valedictorian 정원희	20	칼럼: 이정근 / 독자의 광장
3-4	노동절 역사 - 미국 / 한국	21-23	동문글: 시-첫사랑 / 꿈트 / 여행기
5-6	모교소식: 다양한 릴레이 기부	24	제니의 그림이야기 / 이종호-풍향계
7-10	지부소식: PA/샌디에고/남.북가주/시카고/뉴욕	25	스탠포드대의 투자 / 나이 들면
11	게시판: 시카고/남가주/뉴욕 행사	26	부고: 김종선, 김익창 동문
12	모교소식: 기부소식 / 서울대 모금캠페인	27	회비 & 후원금 동문명단
13	칼럼: 일과 가정 두마리 토끼	28-29	미주 동문 업소록
14	감사편지: 하틀랜드지역 / 회보 인연	29	원고모집 / 편집후기
15	영화이야기: 임연철 / 칼럼: 한정민	30	미주 동창회 조직과 지부
16-17	My Story & Your History / 퀴즈결과	31-32	광고

인터뷰

“서울대생, 지식 상인 넘어 선한 마음 갖춰야”

- 서울대 법인 체제 첫 총장 취임 1년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대가 국립대학에서 법인으로 바뀐 지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다. 성낙인(65) 총장은 서울대가 법인체제로 전환된 뒤 선출된 첫 번째 총장으로 지난해 7월 취임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국립대에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법인체제로 바뀐 뒤 서울대엔 어떤 변화가 있고 있을까.

성 총장은 “정부가 만든 룰에 따라 움직이는 단계를 넘어선 대학이 한국에도 나와야 한다”며 “서울대가 선도적으로 그런 대학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총장 집무실에서 이뤄진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는 지금 새로운 대학을 창조하는 과정에 있다. 법인체제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게 아직 많다”고 말했다.

-법인체제가 가져온 변화가 궁금하다.

“우선 행정의 효율화다. 법인화 전엔 예산에 일일이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 이젠 자금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됐다. 그만큼 알뜰히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단과대학마다 행정실장 밑에 사무주임이 있었다. 내가 취임하고 행정실장이 사무주임

을 겸직하게 했다. 총장실부터 술선수번호야 한다는 생각에 총장실 비서를 2명 줄였다. 이렇게 직원 20명 이상을 감축했다. 직원들은 법인화 5년 이내에 타 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서울대 잔류를 결정한다. 잔류하는 직원은 이제 ‘영원한 서울대인’이다. 그만큼 행정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취임 이후 인재상으로 ‘선한 인재’를 주장하는데.

“서울대생이 똑똑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잘 안다. 그것만으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거기에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야 한다. 서울대생이라면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가져야 한다. 서울대생이 ‘지식 상인’만 돼선 안 된다. 서울대생은 전공을 불문하고 40대가 되면 대부분 자기 조직의 관리자가 된다. 국가와 사회에 대해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자기 팀원, 협력처 직원을 배려하지 않겠나.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다음 학기에 ‘인간학 개론’이라는 교양 강좌를 개설했다. 내년엔 ‘행복학 개론’도 시작한다. 학생 대부분이 인간·행복·생명 관련 강의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입과 학교 운영도 바꾸나.

“일부 학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을 미대·사범대·체육교육학과·음대·자유전공학부 등 2017학년도부터 전체 학과로 확대한다. 전체 모집 정원 중 23%(735명)를 지역균형선발로 뽑게 된다. 벼지 학생 중 예고 출신이 아니더라도 예술에 대해 잠재력 있는 학생은 뽑아야 한다. 또 집안이 어렵다고 서울대에 못오는 인재가 없어야 한다. 교육부는 대입

에서 수능 영향력을 낮추려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섬에 살면서 내신 좋고 수능 시험을 잘 본 학생은 서울대 올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 사이에선 서울대 입학이 갈수록 어렵다고 한다.

“항간에 서울대 교수는 아이를 서울대 못 보내는데 고3 담임은 아이를 서울대 입학시킨다는 말이 있다. 워낙 입학전형이 복잡한 탓이다. 그래서 단순화했다. 수시에선 내신 중심과 지역균형선발, 정시에선 수능 중심이다.”

숫자로 본 서울대	
· 설립	1946년
· 전임교수	2000명
· 학부생	1만6000명
· 대학원 석·박사 과정	1만명
·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	57%
· 해외 교류 대학 연구기관	320곳

-서울대엔 강남3구 학생이 갈수록 많아지는 게 아닌가.

“꼭 그렇진 않다. 배 타고 가는 섬에 있는 고교 7곳에서도 신입생을 받으려고 입학본부장이 찾아가고 있다. 또한 월경균 가구 소득 120만원 미만의 소득 차상위 계층이 학부에만 800명이다. 이런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해줬는데 그것만으론 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학생 전원에게 올해 3월부터 매월 기초생활비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6월부터 원가 21000원인 학생식당 식사를 1700원에 내놓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이 메뉴를 ‘총장밥’이라고 하더라. 아침은 1000원으로 내렸다. 그랬더니 이용 인원이 두 배로 늘더라. 학교 기숙사, 인근, 원룸 사는 학생들이 먹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벤츠 몰고 오는 학생과도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서울대의 강점인 연구경쟁력을 높일 방안은.

극무대에 서기도 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는 “이 경험들이 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됐다”고 했다.

그는 ‘삼포세대’ ‘달관세대’ ‘헬조선’ 등의 말이 가리키듯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세상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

게 조연했고 원하던 초등학교에 입학할 거부당하기도 했다. 모두가 불가능을 이야기하는데도 좌절하지 않은 데는 그가 최고의 멘토로 삼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그는 “‘장애는 불편함을 주는 요소일 뿐 내 삶에 어떤 불가능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은 부모

장애, 불편함일 뿐 불가능 가져오진 않아 우리 모두 ‘가능성’ 증명하는 삶 살아가야

님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사회에서도 제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공간이 있음을 믿게 해 준 서울대에서의 시간이 또 다음 믿음의 원천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대학생활도 한계를 짓지 않았다. 지난 2009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후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봉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진행하며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믿게 해 준 서울대에서의 시간이 또 다음 믿음의 원천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홀로 휠체어를 타고 유럽 배낭여행을 했고 교환학생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다녀오기도 했다. 장애인의 몸은 아름답지 않다는 통념을 깨기 위해 연

“우리 대학이 정부 지원 4000억원을 포함해 예산이 8000억 정도 된다. 도쿄대의 절반이 조금 안 되고 싱가포르국립대의 3분의 2 수준이다. 노벨상 수상자는 현재 30, 40대에서 나온다. 이들이 자기 연구를 평생 할 수 있게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다. 물론 국민이 공감하고 도와줘야 가능하다.”

-지금 대학가에서 구조개혁이 한창이다.

“구조개혁이 인원 감축 위주로 이루어지는 듯하다. 정부는 재정지원으로 대학에 인원 감축을 유도한다. 재정 지원이 인일 감축을 전제로 하다 보니 서울대가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다. 현재 서울대 학부 입학정원은 거점 국립대학 중 제주대 다음으로 적다.”

-갈수록 학령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서부실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하지 않나.

“물론 그렇다. 그런데 법적으로 대학은 사고팔지 못하도록 돼 있다. 대학 설립자들이 자기 전 재산을 넣어 대학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문 닫아라 하면 곤란하다. 건물 등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시설을 다른 대학에 통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총장이자 법학자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춘추전국시대에도 덕치를 최고로 보고 법치는 제일 아래로 치지 않았나. 민주화 과정에선 사회적 약자가 붉은 피를 두르고 농성해야 하는 시절이 있었다. 법이 약자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 점도 있었는데 이제 법이 고쳐졌다. 시민들도 생활 속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 이제 혁명의 시대는 끝났다. 시민들이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설득과 합의에 기반한 합의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중앙일보>

이 푸르지만은 않다는 무거운 현실을 느끼게 한다”면서도 “세상은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리는 산 같은 존재기에 여러분을 둘러싼 난제 속에서도 이 사회를 품격 있는 명산처럼 가꿔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본부. 서울경제>



*편집자주: 3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 5포세대: 삼포세대에 취업,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경우 / 헬(Hell)조선: 살기에 지옥 같은 한국

노/동/절/을/맞/아

미국 노동절의 역사

노동운동의 역사는 고용주 갑과 노동자 을의 관계의 역사다. 갑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을은 그 갑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갑은 갑대로 여러 계층이 생기게 되고 을도 마찬가지로. 일단 노조의 지도부가 되는 순간 그들도 갑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 같다. 을 중에서도 을인 비정규직은 또 어떠한가? 모두가 갑인 세상, 모두가 을인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인가? 천국이나 지옥 외에는 불가능 한 것인가? 9월 노동절, Labor Day를 맞아 일년 365일 12시간 노동(장사)를 하며 힘든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동포들의 삶에 눈길을 돌릴 수 있는 동창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국과 한국의 노동역사를 훑어 본다.

<편집위원회>

산업혁명 그리고 노동자의 탄생

18세기-19세기의 산업혁명 후 인간은 부르주아(bourgeois,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와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 생활하는 임금 노동자)라는 두 가지의 큰 범주로 나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 안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자본이 지배하는 국가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저항의 구호는 다양했다.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과도한 노동강도 그리고 지나친 노동시간 등 노동자의 삶에 피해를 만드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었지만 이 중 ‘노동절’ 탄생의 산파(産婆) 역할을 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대적인 투쟁이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초기에 노동자 일반의 노동시간은 최고 18시간에 달했으며, 영국 맨체스터(Manchester) 부근 한 공장의 방적공은 물 마시러 가는 것조차 금지당한 채 고온의 작업장에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받기도 했다. 첫 시작은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였다. “하루 8시간 노동(Eight-Hour Movement)”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롤레타리아의 휴일 기념식(proletarian holiday celebration)”이란 아이디어가 나왔고, 1856년 4월 21일에 총파



업과 더불어 가진 기념행사 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휴일 기념식”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도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며 철강, 철도, 광산 부문 등에서 공장 점거와 파업 등의 격렬한 투쟁이 발생했다.

노동자의 날: 1886년 미국의 노동자 대투쟁과 제2인터내셔널

미국에서의 첫 노동절은 Central Labor Union 주도하에 1882년 9월 5일에 있었다. 이듬해 같은 날, 두번째 노동절이 지켜졌다. 1884년엔 9월 첫 월요일로 정했고, Central Labor Union은 다른 유스기관들에게도 뉴욕을 따라 같은 날을 ‘근로자의 명절, Workingmen’s Holiday’로 지키기를 권유했다. 많은 노동기관들이 동조해 미국내 곳곳의 산업센터들에서 1885년 9월 첫 월요일 노동절이 지켜졌다.

1886년 5월 1일에는, 미국노동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FL)이 8시간 노동을 거부하는 모든 공장에서 전국적인 파업을 벌일 것을 호소했다. 전국 1만 1,562개 공장에서 35만 명이 호응해서 파업에 돌입했다. 디트로이트(Detroit)에서는 1만 1,000명의 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 행진을 벌였다. 뉴욕에서는 2만 5,000명이 브로드웨이(Broadway)를 따라 횡단 행진을 벌였는데 제빵공 노동조합(Baker’s Union)의 3,400명이 행렬의 선두에 섰다. 시카고에서는 4만 명이 파업을 벌였고, 4만 5,000명이 파업 예방조치로 노동시간 단축을 얻어냈다. 시카고의 모든 철도가 운행을 멈췄고 산업 대부분

이 마비됐다. 가족수용소 역시 문을 닫았다.

다수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이 포함된 그 당시 노동자 연대가 벌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은 매우 격렬했으며 규모 또한 상당했다. 그렇지만 고용주들의 반격(反擊)도 만만치 않았다. 노동자의 연대를 분쇄하기 위해 주 민병대와 경찰에게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했으며, 친(親)자본주의 신문에서는 연일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며 사회안정을 위해 국가와 주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5월 3일,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졌다. 맥코믹 수확기 공장(McCormick Harvester Works) 앞에서 파업진압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던 노동자와 그 동조자가 경찰이 발포한 총에 맞아 다수가 부상을 입고 4명이 죽었다. 5월 4일, 맥코믹 사건에 대한 구탄(劄譚)과 8시간 노동제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가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Haymarket Square)에서 열렸다. 이곳에 180명가량의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파견되었고 곧 ‘군중해산’을 명령했다. 그런 와중에 정제불명의 괴한이 경찰을 향해 폭탄을 던져 순식간에 경관 66명이 다치고 그 중 7명이 죽었으며, 경찰이 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발포한 총격으로 시민 몇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누가 폭탄을 던졌는지 명확한 증거도 없었음에도 경찰은 시카고 대투쟁을 이끌었던 지도자 8명을 체포했고, 일리노이(Illinois) 주 판사는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는 기각(棄却)됐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관심과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미국과 일리노이 주 정부를 비난하며 8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그러나 재판이 열린 지 1년 뒤에 일리노이 주 정부는 엘버트 파슨스(Albert Parsons), 오거스트 스파이즈(August Spies), 아돌프 피셔(Adolph Fischer), 조지 엔겔(George Engel) 등 4명을 교수형에 처했으며, 루이스 링(Louis Lingg)은 감방에서 다이내마 이트를 압에 문 채 터뜨려 자살했다. 사형 집행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고, 시카고에서는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행렬이 이어졌다. 미국 전역에서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자들의 석방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이 벌어졌으며, 결국 신임 일리노이 주지사 존 피터 울트켈드(John Peter Altgeld)의 지시로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 남은 3명—새뮤얼 필드(Samuel Fielden), 오스카 니베(Oscar Nebee), 마이클 슈와브(Michael Schwab)—은 무사히 석방되었다.

헤이마켓 사건이 발생한 후 여론은 두 갈래로 갈라지고 미국의 노동자 투쟁은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은 듯했다. 그러나 1888년에 미국노동연맹은 2년 전 투쟁분위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 1890년 5월 1일에 대규모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 보고를 받은 칼 마르크스(Karl Marx)를 포함한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프랑스 혁명시 벌어진 바스티유(Bastille) 함락 100주년인 1889년 7월 14일에 파리에서 열린 제2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회의(International Worker’s Congress)에서 “5월 1일”을 “국제적인 대투쟁의 날(great international demonstration)”로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5월 1일의 메이데이는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이 후에도 몇차례의 중요한 노동투쟁이 있었다. 1892년 펜실바니아주의 스톱스테드의 제철소에서 발생한 파업과 1902년 발생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해결된 J.P. Morgan 측과 펜실바니아 안스라사이트 탄광 광부들의 파업 등이 그것이다. 강철왕이라고 불리우던 앤드류 카네기가 고용한 CEO 헨리 프릭(Frick)의 무자비한 경영을 항의하며 발생한 스톱스테드 파업은 143일을 끌다 프릭측이 고용한 진압대에 의해 10여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부상한 채 노조의 외곽으로 끝났다. 이 파업은 미국 노동사에서 최악의 파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01년 카네기는 자신의 철강회사를 J.P. Morgan의 제강회사와 합병하여 미국 철강시장의 65%를 지배하는 US스틸사를 탄생시킨 뒤, 사업가로서의 삶에서 은퇴했다. 은퇴 후 그는 카네기멜론 대학을 세우고 6500 여개의 도서관을 설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단 설립 등 자신이 축적한 부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5월1일 ‘메이데이’를 노동절로 하고 있지만 미국은 9월 첫 월요일을 Labor Day로 지정하고 있다. 스톱스테드 파업 실패 후 미국내 사회주의가 쇠퇴하고 있었다. 메이데이는 그 유래가 위에 설명한 대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색깔이 짙기 때문에 1894년 미 의회는 5월1일 메이데이 대신 9월 첫째 월요일을 ‘레이버 데이(Labor Day)’ 공휴일로 선포했다. 9월 노동절



은 1882년 9월 5일 센트럴 레이버 유니온이 뉴욕 맨하튼의 유니온 스퀘어에서 역사적인 노동자 행진을 거행한 날에 근거한다. 오늘날의 레이버 데이는 여름시즌, 휴가 시즌의 마무리 하고, 학생들은 새 학년을 맞으며, 일반 근로자들은 각자의 작업장에서 새로운 것으로 한 해를 열심히 일하자는 의미의 Workingman’s Holiday (근로자의 날)로 가두행진, 피크닉, 불꽃놀이, 파티 등 흥겨운 국가의 명절이 되었다.

현재 미국엔 1955년에 두 노동기구가 합치면서 출범한 AFL-CIO (미국노동,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워싱턴 D.C.에 본부 소재)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구로 산하에 2015년 4월 현재 총 56개 노동조합이 가입돼 있다. 항공조종사 노조, 운송노조, 우편 노조, 교원노조에서부터 연방공무원노조, 연예인 노조, 가수 노조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전반적인 산업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1979년 2천만명에 달했던 회원 수가 트럭 노조와 간호사 노조 등이 탈퇴하면서 2013년에는 1천 2백 50만명으로 줄었다.

미국노동통계국 2012년 통계에 의하면 노조가입자들의 주평균 급여는 943달러이고 미가입자들의 급여는 742달러이다. 그런데도 전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11%(2008년)로 저조한 편이고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공공부문 노동자, 특히 교사, 경찰, 소방관 등 지역 공무원들의 가입률은 41%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매년 9월 새학기가 되며 터지곤 하는 교사들의 파업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절/을/맞/아

일제하의 노동운동

일제의 지배가 본격화할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와 ‘조선노동대회(朝鮮勞動大會)’라는 전국 단위의 노동자 조직이 결성되었다. 1922년에 ‘조선노동연맹회(朝鮮勞動聯盟會)’가, 1924년에는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動總同盟)’가 각각 설립되었다. 조선노동연맹회는 3.1운동 이후 산발적으로 치러졌던 노동절 행사를 1923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차원의 운동으로 추진했고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1929년 발생한 원산 총파업(元山總罷業)에서 절정에 달했다. 1920년대말에는 대략 80여 군데의 노동단체가 조직되었으며, 1930년대까지는 그 수가 560여 개에 이르게 되었다. 초창기 노동단체 대부분은 선진적인 지식인이나 노동운동가가 주도한 지역 중심의 조직이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역할이 점차 쌓여가면서 노동운동은 지식인이나 엘리트 중심이 아닌 노동자 다수에 의한 운동으로 변모(變貌)했다.

해방 이후 노동운동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후 독립과 함께 결성된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와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는 공장노동자가 일제가 운영하던 공장들을 접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했다. 그리고 미군정이 들어선 후, 대중적 조직기반의 중요성을 인식한 좌익 세력에 의해 1945년 11월 5~6일, 서울 중앙극장에서 해방 후 첫 전국적 노동조직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朝鮮勞動組合全國評議會, 이하 전평이)가 결성되었다. 전평이 결성되고 사회주의 세력이 강대해지자, 우익진영에서도 1946년 3월 10일에 대한독립촉성노동총동맹(大韓獨立促成全國勞動總同盟, 이하 대한노총)을 결성해, 전평의 투쟁과 활동을 분쇄하는 데 나섰다. 이에 맞서 전평은 1946년 9월 20만 노동자가 참석한 제1차 총파업, 1947년 3월 제2차 총파업 그리고 1948년 2월 제3차 총파업으로 맞섰다. 그리고 1948년 5월 남조선 단선단정 반대투쟁 총파업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지막 저항을 했으나 경찰, 청년단체, 대한노총에 의해 완전히 분쇄되었다. 제3차 총파업이 실패로 끝나고 극심한 탄압으로 좌익진영이 와해되어 지하로 숨어들 이후, 좌익진영이 주축하는 노동절 행사는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하지만 우익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대한노총의 노동절 기념행사는 계속되었다. 1953년 노동법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58년에는 섬유노조연맹과 자본가 사이에 8시간 노동제가 체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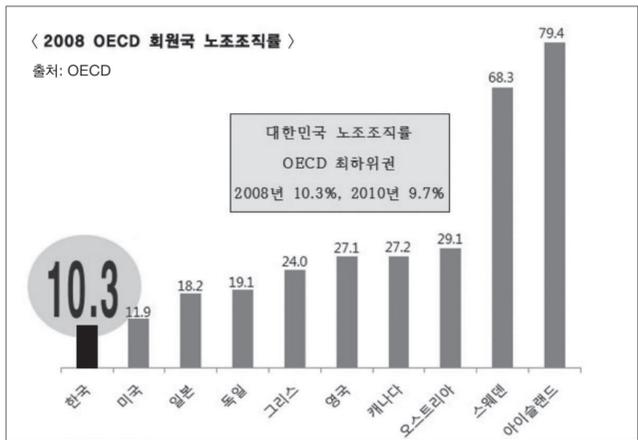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전평이 주축이 되어 1946년 5월 1일 20만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노동절 기념식(메이데이)는 전평이 와해된 후에도 대한노총에 의해 해마다 계속되었다. 1957년 5월 1일 노동절 기념식이 끝난 후 “메이데이는 공산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는 날이니 반공하는 우리 대한의 노동자들은 메이데이와 구

한국 노동절의 역사

별되는 참된 명절을 제정하도록 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절은 대한노총의 창립일인(1946년 3월 10일)인 3월 10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59년 3월 10일부터 (이승만 정부의 ‘국시(國是)’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제1회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리게 됐다.

4.19 후, 어용노조 민주화운동에 따라 대한노총을 재편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된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5.16 쿠데타



후, 박정희 정권은 노동조합과 각종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하고 1963년에는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다. 왜 박정희 정부는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꿨을까?

산업화 초기에 공장노동자는 노동자, 공장노동자, 공원, 공순이, 공돌이, 근로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산업화가 계속 진행되고 공장노동자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정부와 자본은 산업노동자를 지칭하기 위한 공식용어로 ‘근로자’를 전국에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부르게 했다. 그런데 근로자라는 말은 육체노동자, 비(非)육체노동자, 기술자 등 모든 종류의 피고용자를 가리키는 대단히 폭넓은 용어였다. 1960년대 말부터는 산업전사, 산업의 역군, 수출의 역군, 수출의 기술자 같은 새로운 단어들도 등장했다.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성장주의 그리고 군대식 수사가 절묘하게 결합한 이 새로운 명칭은 수출증대를 국가의 제1목표로 하는 개발독재 국가에 있어 ‘근로자’도 탈바꿈한 노동자를 국방을 위해 싸우는 군인과 동일시하는 메타포(metaphor)나 다름없었고, 그에 걸맞게 수출촉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애국자라 칭송받았다. 한편, 북한에서의 노동절 처지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독재체제의 선전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순응한 남한의 노동절과 다를 바 없다.

다시 찾은 노동절: 미완의 승리

박정희가 암살당한 후, 민중은 전두환 정권의 1987년 공표된 4·13호헌조치를

맞서 싸우며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의 6·29선언을 이끌어내고 대통령직선제를 관철했다. 민중 일반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도 저항의 물결에 동참했다. 노동운동의 불모지로 일컬어지던 거대제철의 사업장—울산 현대중전기, 현대자동차, 현대엔진, 창원 대우중공업, 옥포 대우조선—에서 자본과 독재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행동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 노동자는 1987년 6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311건의 노동쟁의를 일으켰고, 그 가운데 97.7%

인 3,235건은 파업이었다. 여기에 참가한 총인원은 약 122만 5,830명이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사건 이후 전국의 작업장에서 기존의 친(親)자본가적인 한국노총(韓國勞總)에 반대하는 세력은 새로운 형태의 전국노조인 민주노총의 설립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복수노조금지’이라는 법 때문에 전국적인 노동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던 이들은 90년대 6공화국에 들어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1995년 10월 전국단위의 노동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자의 날”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1989년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전국 5천여 명의 노동자가 연세대학교에 모였다. 이 곳에서 노동자는 1886년 시카고 대투쟁 이후 제2인터내셔널의 발로 시작된 제100주년 노동절 행사를 거행했고, 5월 1일, 메이데이라는 노동절의 날짜와 이름을 되찾았다. 1990년에는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3천여 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절 대회가 개최됐으며, 전국 각지의 노조에서 노동절 기념식이 열렸고, 1991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3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의 노동절 대회와 함께 전국 14개 지역에서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세계노동절대회가 개최되었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마침내 “노동자의 날”을 대한노총 설립일인 3월 10일이 아니라 제2인터내셔널이 “노동자 대투쟁의 날”로 선언한 5월 1일로 변경할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급휴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실

한국노총은 친 보수정부적으로 어용이라는 비난을 줄곧 받아왔고 민주노총은 좌파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한국노총의 리더들은 귀족화되어 곧장 보수 집권당의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는가, 정치적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비정규직의 노동인권 문제 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강경한 좌파 노선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깊게 얽히는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 파업과 시위가 잦은 편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과거와 달리 현저히 떨어진 탓에 ‘뺑파업’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다. 민주노총에 속한 수십 만의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밖에 안된다. 따라서 노동자와 직접적인 문제인 비정규직이나 노동조합법 개정과 같은 문제에서도 말로만 총파업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보다도 이미 기득권을 가진 대공장 노동자 중심의 운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민주노총의 가장 강력한 근원지는 금속노조이고 이들 대부분이 대공장 노조 소속이다. 그런데 말 그대로 대공장, 이미 기득권을 가진 노동자이기에 약자인 비정규직으로 투쟁을 진행하기에 노조원들의 인식 자체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진보 세력 내부에서는 사회 운동성을 표방한 민주노총이 임금 인상 등의 이슈에만 매몰된 나머지 대규모 연대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 역시도 많이 있다. 이는 민주노총 내부에서조차 제기되는 문제이며 현재 이 문제로 인해 민주노총 내부 세력간 의견 충돌이 심한 편이다. 2008년에 발생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성폭력 사건과 이에 대처하는 지도부의 일련의 행동들도 이들이 과연 약자를 위한 단체인가? 의심케 하는 실정이다.

현대차 평균임금 년 1억

(참고: 현대차 사측에 따르면 자동차 현대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2014년 6월 기준)은 현대차 미국 현지 공장이 14.7시간, 체코 공장 15.3시간, 중국 공장 17.7시간, 러시아 공장 16.2시간, 브라질 공장 20시간인 데 비해 국내 공장은 무려 26.8시간이나 된다. 현대차 국내의 공장 중 세계 꼴짜다. 국내 공장에서 차 한 대가 조립돼 나오는 시간이 해외 공장보다 30~40%나 긴 것이다. UPH(Unit per Hour)를 따져 봐도 마찬가지다. 미 앨라배마 현지공장의 UPH는 73대, 조지아 공장은 66대다. 반면 현대차 울산공장은 53대, 기아차 소하리 공장은 44대 수준이다.

생산성이 낮으면 임금이 낮아야 하는 데 국내 공장의 임금 수준은 어떨까? 현대차 국내 공장의 평균 임금은 2001년 4242만 원에서 2008년 6774만원, 2013년 9458만원, 지난해(2014년) 9700만원으로 치솟았다. 중국 브라질 체코 현지 공장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각종 수당이나 성과급이나 자녀학자금 등은 정액이 아니므로 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의 노조 측은 이보다 훨씬 낮은 60%정도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교소식 SNU NOW

이성호(법대76) 인권위원장 취임... “시민단체와 소통 강화하겠다”

인권위 독립성·공정성 ‘강조’
고공농성 노동자 가족들과 ‘비공개 면담’



이성호(68) 전 서울중앙지법판사가 13일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

분부와 총동창회, 서울대 역사연구기록관 건설 추진 중



분부와 총동창회가 서울대 역사연구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역사연구기록관 건설은 2014년에 총동창회가 100여원을 지원하는 양해각서를 분부와 체결하면서 탄력을 받았으나 학내 부지 선정 문제로 인해 미뤄졌다. 이후 문화관 재건축이 내년으로 계획되면서 역사연구기록관이 문화관 옆에 함께 지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건설되는 역사연구기록관은 기존 기록관의 역할과 함께 서울대 역사를 흥

2015학년도 2학기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성낙인 총장은 지난 8월 25일 교내 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5학년도 2학기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553명에게 총 15억원 여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장학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5명)가량 늘어났다.

장학생 중에는 탈북자 출신 이정에(가명·사회대 박사과정)씨와 몽골 출신 오강바야르(사회대 4년)씨 등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 장학금부터는 134명의 학생에게 등록금 이외에 개별 장학금 형태로 학업 장려금을 전달하며 지원을 강화했다.

성 총장은 격려사에서 “동창회 장학금 수여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대한 격려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를 담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지식인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울대학교 홍보팀)

드시 지켜져야 할 것은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며 “행정, 입법, 사법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권위의 독립성은 물론 이념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이 사회적 고품질을 의미하거나 독단적인 업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인권 선진 사회의 실현은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함께 누려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우리 사회 전체에 고르게 확산되고 공유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민단체는 인권 업무의 파트너로서 인권위와 함께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을 앞당길 수 있다”며 “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통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인권기구를 대표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인권위에 대한 등급 심사에서 최근 세 차례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들과의 협력 관계도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는 것이 위원회의 주요 과제”라면서도 “정부와 국가기관 역시 분질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므로 인권위가 권고하는 내용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 권고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보, 전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역사연구기록관이 새롭게 세워지는 취지에 대해 시설기획과는 “기존 기록관 시설로는 방대한 양의 서울대 사료를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역사연구기록관은 기록뿐만 아니라 서울대 역사를 전시하고 홍보하는 역할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시설로는 홍보관, 기록관, 역사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역사연구기록관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100억원 상당으로 총동창회의 기부로 충당된다. 내부 구성물들은 기록관에서 갖고 있던 자료와 총동창회에서 동문, 교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역사연구기록관의 건축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으나 문화관 재건축 재원 마련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시설기획과는 “문화관 재건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확정

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관일 때 법관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처럼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있다”며 “인권위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지만 장애인과 비정규직 근로자, 이주민, 시실생활인, 노인 등 모든 사회적 취약 계층이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며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1980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5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30년 동안 법복을 입었던 ‘정통 법관’ 출신이다. 서울고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18년 8월 12일까지다.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인권위 건물 옥상에 있는 광고판에서 64일째 고공농성 중인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희(45)씨와 한규원(41)씨의 가족들과 동료, 전국금속노동 기아자동차 지부 화성지회 관계자들은 “지난 10일부터 식사와 물 반입이 끊겼다”며 이들에게 식사와 물을 전달하기 위해 이날 인권위를 찾았다. 그러나 최씨와 한씨가 “한끼만 올려주고 다시 공급을 끊을거면 안 먹겠다”고 거부해 식사와 물은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최씨와 한씨의 가족들과 화성지회 관계자 등 10여명은 인권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인권위원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족들과 비공개로 면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되지 않았다”며 “역사연구기록관이 문화관과 함께 건축되는 만큼 문화관 재건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확정돼야 역사연구기록관의 건축시기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동창회는 기존에 분부가 개교 이후 10년 단위로 역사서를 편찬하던 것과는 별개로 각 단과대의 전신학교부터의 역사를 다루는 ‘서울대학교 120년사’를 편찬 중이다. 편찬위원회 홍문기 편찬위원은 “서울대학교의 공식적인 개교는 1946이지만 법관양성소, 대한의원, 관립농상공학교 등과 같은 다양한 전신들이 모여 서울대를 이뤘다”며 “경성제국대학만이 서울대의 전신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역사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120년사 작업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어떤 형태로 공개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학신문>



▲ 장학금 수여 후 기념 촬영하는 성낙인 총장

화려한 서울대 뒤편, 시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서울대 기전노조, 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요구하며 피켓 시위



▲ '일반노조 서울대 기계·전기 분회(기전노조)'는 7월 29일부터 임금 인상과 근로환경 개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 안미혜 기자

서울대 기전노조는 서울대학교의 냉난방, 화장실, 배관, 전기 등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자 1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와 시설관리 계약을 맺고 있는 백상기업 소속의 용역직원으로, 현재 사측인 백상기업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기전노조,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정규직 전환 요구

서울대학교의 시설관리는 24년간 원방기업이 맡아왔으나 작년에 백상기업으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새 업체가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을 넘겨받았다. 새 회사는 직원교육이나 업무방식에 기여한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는 서울대내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기전노조의 주장이다. 기전노조 김재일 위원장은 "회사는 인건비 지급만 하고 있는데 계약금의 15%를 사측이 가져가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면서 "민간기업들과 비슷

한 수준인 3%로 낮추고 그 금액만큼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전노조는 또한 1인당 인건비를 산정해 계약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하는 법정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학교 측에는 ▲고용 안정 ▲사무원경 개선 약속 이행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김재일 위원장은 "서울대에서 인원을 감축하고서는 다시 그 업무를 외주하는 식으로 편법감원을 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감축을 중단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환경 개선에 관해서는 2013년 회사와의 교섭 과정에서 학교가 구두로 약속했던 부분이다. 30여곳중 작년에 4곳이 개선되었으며 학교는 올해도 '사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편이다.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연식이 10년 정도 된 컴퓨터이고,

이중 지급받은 것은 10대지만 나머지는 폐품에 가까운 부품들을 모아 조립해서 사용하고 있다. 책상, 옷장, 캐비닛 등의 물품도 지급받지 못해 학교에서 버린 물품을 주워와 재활용 했다. 사무실 역시 위험구역인 전기실에 임시로 마련된 채 마땅한 장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 외에 서울대 정규직은 캠퍼스내 주차비가 1만원이지만 용역직원은 5만원인 점도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측, "원천으로서 개입 불가"

학교는 작년에 임금인상이 적절히 이루어졌고, 더 이상의 인상은 회사에게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무환경 개선은 원칙적으로 하청업체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개선해 준 것이며, 예산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지원과 이규진 과장은 "임금인상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대학측에서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용역직이 파견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 계약관계에는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학교 측에서 개입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사측인 백상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지출된다"며 "(회사가) 터무니없이 높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사무환경 개선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중이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시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위해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기전노조 김재일 위원장은 "용역의 문제점은 1년이나 2년 후에는 얼마든지 다름회사로 변경될 수 있어서 직원복지나 사무환경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라면서 "시설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 시의 인건비 부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전 임금은 업계 최저인 140만원 정도였다. 그나마 임금이 인상되어 180만원인데 이 정도면 업계 중간 남짓일 것"이라면서 "직접 고용하면 하청업체가 떼어가던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면 1인당 70만원 정도인데, 그월 월급이 250만원 정도 된다. 추가 예산 없이도 임금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원·하청 관계에서 용역직원의 업무 관리 감독은 용역회사가 해야 한다. 그러나 기전노조에 따르면, 실제로는 서울대 직원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용역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나 관리 감독을 하는 일도 많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간'의 윤지영 변호사는 "서울대가 구체적인 업무, 1인당 인건비 등 세부조건을 결정하며 용역 계약을 맺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직접고용'이라 지적하며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간접고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김재일 위원장은 "서울대 총장의 책임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 성낙인 총장께서 선한 인재,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셨는데, 이런(학내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선한 인재 양성이 아니겠나"라고 하며,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해 파견권을 얻어야 우리의 요구에 응할 것 같다"며 "피켓 시위는 계속할 것이지만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학교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봉사활동도 하고 있으니, 우리의 문제를 구성원의 문제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저널)

필라델피아 동창회 : 마스터코랄 연주 / 김금자 동문 전시회 / 광복 70주년 필라한인회 잔치



아리랑, 통일 염원 담아 울려 퍼져... 필라 마스터코랄 광복 70주년 평화음악회

루터란 교회당 가독 메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8.15일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가 8월 16일 저녁 7시에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트리니티 루터란 교회에서 열렸다. 필라델피아 마스터코랄(예술감독 이창호)이 주최한 평화음악회(대회장 하형록, 후원이사장 전희근)는 아름다운 모던 고딕양식의 연주회장을 가득 채운 청중들의 가슴에 베풀 감동을 안겨 준 연주회는 피아니스트 칼 크랜머 (이인영(음대90)동문 부군, 웨스트체스터 대학교수)가 연주하는 쇼팽의 'Etude Op.10 No.12 in C Minor'와 이영조 작곡의 '피

아노를 위한 위음 아리랑'의 웅장한 때로는 애잔한 선율로 막을 올렸다. 이어 필라델피아 마스터코랄이 부르는 흥겨운 한국민요, '꽃타령', '민요축전' 그리고 후난파의 '사공의 그리움'으로 이어졌다. 이 후 소프라노 이인영 동문 (웨스트체스터대학교 교수)의 '아리랑'과 '그리운 금강산'이 청중들의 가슴을 울려내었다. 휴게시간 후 이어진 2부에서는 필라델피아 마스터 코랄 교향악단의 'Arirang for String Orchestra', 70여 명의 마스터 코랄 합창단과 30여명의 소년소녀 합창

단이 30여명으로 구성된 교향악단의 연주 속에 'Song of Arirang' 갖가지 아리랑 메들리가 향수를 자아냈다. 그리고 나서, 안익태 선생의 '한국 환상곡(Korea Fantasy)'이 울려 퍼졌다. 끊어질 듯 그러나 끊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 연결되는 '동해물과 백두산'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합창 속에 청중들은 모질진 민족혼과 한국의 얼을 가슴 깊이 느꼈다.

끝맺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음악회 대회장을 맡은 하형록 목사(본 동창회 손재욱회장 부군)는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의 수고와 대가로 오늘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꿈이 하나 있다.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통일의 노래를 불러 가자'고 했다. 이날 저녁 참석한 1.5세, 2세 젊은이들이 무대 앞으로 나가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를 청중 모두와 함께 드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의 염원을 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단과 청중이 목놓아 부르며 연주회가 끝이 났다.

"오랜만에 감명있는 공연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런 감동스러운 공연을 언제 또 볼 수 있을까요?" "아리랑이, 이렇게 다양한 곡의 아리랑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등 이구동성으로 박찬 감격을 말하게 한 광복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는 두고 두고, 필라델피아 청중들의 가슴에 기억될 것이다..

필라델피아 마스터코랄은 2010년 창단 이래 그동안 15회에 걸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쳐왔다. 송영두, 원종민, 유미영, 이규호, 이만택, 주기복, 한수용 등의 동문들이 마스터 코랄의 후원자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김진주, 전희근 등 여러 동문들이 멤버로 활약하고 있다. <편집위원회>



김금자(Alice Chung) 동문 전시회

펜실바니아 주의 몽고메리 카운티 전문화가 클럽의 창립때부터 계속 전시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화가 김금자(간호 63, 미국명 Alice Chung) 동문이 8월 7일 금요일 20명의 미국 화가들과 함께 'Swarthmore Borough Hall' 에서 열리는 그룹전에 작품을 전시하면서 리셉션에 참석했다.



MCGOPA(Montgomery County Guild of Professional Artists Association) 로 불리는 이 화가들의 클럽은 1997년 이래 현재까지 수십차례의 전시를 하고 있는 전문화가들의 모임이다. 전시는 8월 2일부터 30일까지로 121 Park Avenue, Swarthmore, PA 에서 전시 중이다.

김 동문은 'Pennsylvania Academy of the Fine Arts'를 20여년 전에 졸업했으며 그동안 필라델피아



뉴저지 한국 등에서 작품 전시를 해오고 있다. Thomas Eakins 등 미국의 유명화가들이 활동하던 아트클럽인 <The Philadelphia Sketch Club>의 Board of Director 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동문은 2014년 3월에는 'The Philadelphia Sketch Club Stewart Gallery'에서 개인전을 했으며 지난 2015년 6월에는 뉴저지 프린스턴 지역에 있는 'A Space on Main Gallery'에서 7번째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광복 70주년 필라한인회 잔치

또한 필라델피아 한인회가 주최한 8월 15일 광복절 70주년 기념행사가 본 동창회 본부가 위치한 블루벨 타운쉽 공원에서 열렸다. 필라델피아 카메라라(Camerata) 합창단 지휘자 박혜란 동문(음대 84)과 함께 합창단원 송성익(문리대 59), 유미영(음대 87), 현명억(공대 75)동문 내외와 가족들이 참여해 '경기흥로 아리랑'과 '그리운 금강산' 등을 합창했다.

필라 시청앞 광장에서 플래쉬몹을 하고 뒤편에 한인회 행사장으로 합류한 유스오케스트라단과 함께 몇 십년만에 애국가를 부르며 광복의 감격을 자리를 함께 한 한인들과 나누었다. 한인회 행사는 낮부터 밤까지 카메라라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와 그 밖에 태권도, 검도 시범, 고전무용팀의 부채춤 등 다채로운 행사가 푸짐한 먹거리와 함께 계속되었다. <현명억(공대 75) 편집위원>

Relay 1. 더 기빙 플레지

'빈손'을 약속하는 억만장자들의 모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인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지난 2010년 재산의 사회 환원 약속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부호들의 기부 클럽인 '더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를 탄생시켰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공개적인 약속을 통해 빌 게이츠는 자신 재산의 95%를, 워런 버핏은 99%를 평생 동안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더 기빙 플레지는 이처럼 생전이나 사후에 재산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공약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출범 첫 해 52명이 가입했으며, 한 명의 회원이 동료의 가입을 이끌어내는 식의 릴레이가 이어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 시장 등 2015년 현재 약 137명의 회원이 선행에 동참하고 있다.



다함께 손에 손 잡고, 다양한 릴레이 기부

Relay 2. 아이스 버킷 챌린지

'셀러브리티'와 함께하는 얼음물 샤워

뱃속까지 시릴 것 같은 얼음물을 뒤집어쓴 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동영상 이 한창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바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루게릭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 시키며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다.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동영상을 SNS에 올린 후 다음 도전자 세 명을 지목해 다음 사람이 캠페인과 기부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지목 받은 사람은 24시간 안에 얼음물 샤워를 인증하거나 미국 루게릭병협회에 100달러를 기부해야 한다. 리오넬 메시, 팀 쿡 등을 비롯해 한국에서는 유재석, 원빈 등이 참여했다.

Relay 3. 신발 없는 하루 &기브 라이프 어 핸드

'SNS'를 통한 손쉬운 릴레이 기부

'해시태그'를 통해 손쉬운 기부 활동을 장려하는 캠페인도 있다. 올해 여덟 번째로 진행된 '신발 없는 하루'는 신발 브랜드 탐스(Toms)가 SNS에 자신의 맨발 사진과 #신발없는하루 혹은 #withoutshoes 라는 해시 태그를 달아 올린 사람들의 숫자만큼 신발이 없는 빈곤층 아이들에게 탐스 신발을 기부하는 것. 영국의 생활용품 업체인 레킷 벤키저(Reckitt Benckiser)가 진행하는 'Give

Life a Hand'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손 씻기 교육을 해주는 기부활동이다. SNS에 자신의 손 사진과 #handfie라는 해시 태그를 달아 글을 쓰면 손 씻기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손 씻기 교육이 제공된다. 터치만으로도 기부가 가능해 SNS 친구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낸다.



Relay 4. 글로벌 사회공헌단 도네이션 릴리

'SNU'의 마음을 모아 네팔 지진 피해 복구

2015년 4월 25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800만 명에게 피해를 입힌 대지진이 일어났다. 곳곳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 학생사회공헌단, 총학생회, 네팔유학생회도 '도네이션 릴리(Donation Rally)' 캠페인을 기획했다. 네팔 지진 피해 복구에 대한 학내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모금을 통해 나눔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것. 성금 기금과 동시에 인증 사진을 찍고, 다음 기부자를 지정하여 기부의 기회를 나눈다. 학생, 교직원, 교수들의 기부가 꾸준히 이어져 6월 26일까지 모인 1,650여만 원의 성금이 네팔에 보내는 희망의 작은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대뉴스)

샌디에고 동창회 : 서울대 동문 카약 모임



“부드러운 모래사장에서 --- 부서지는 파도를 헤치고 나가서 ---- (바다에서) 바라보는 샌디에고의 바닷가 경치와 ---- 맑은 파도를 느끼시면...” 이라고 쓰신 회장단의 카약투어에 관한 첫 발송 이메일에서의 묘사가 어찌 이리도 정확한지 후기작성 전에 이메일을 다시 읽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샌디에고에 여러 바닷가가 있지만 저희가 오늘 카약을 타러 나갔던 라호야 쇼어는 특이나 그 모래가 아주 부드럽고 발에 밟히는 감촉이 좋아 맨발로 다니기가 즐거울 정도였습니다. 투어가 아침시간이라 바닷물이 차갑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약 1초간 했으나 회장단의 탁월한 예약시간에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9시에 집합하여 Everyday California라는 카약 투어 렌탈장소에서 서명 및 헬멧, 구명조끼를 받아입고 바닷가로 걸어나가는데, 비치에는 이미 아침나절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모습으로 바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카약이라는 레저는 사진으로는 보았지만, 전혀 해보아야겠다는 거나, 하고싶다가이하는 마음이 없었던, 오히려 제트스키보다도 관심영역 밖이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동문들과 함께 나가는 투어인데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말씀에, 관심 반 호기심 반으로 신청을 하였지요.

동문님들의 반가운 모습, 따갑지 않은 아침햇살, 해변의 부드러운 모래, 친절한 가이드들의 안내등 시작이 좋았습니다. 주의사항을 들은 후 카약을 저어갈 노를 하나씩 받아들고 줄을서서 파도를 뚫어 카약을 밀어줄 가이드들이 서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 대 두 대 카약들이 해변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파도위로 출렁이며 깊은 바다로 진입하는 것을 보며, 8살 딸아이와 함

께 탈 저로선 배가 뒤집힐까봐 살짝 비장한 책임감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이드들이 힘차게 파도가 없어지는 저편으로 이끌어주어 순식간에 깊은 바다의 순한 움직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노를 저을

“부서지는 파도를 헤치고 나가... 바라보는 La Jolla 해안 경치를...”

일만 남았더군요. 이리저리 움직이다 요령을 조금 터득하고, 후시라도 무리에서 멀어질까봐 멀리보이는 라호야 절벽밑의 동굴들을 향해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내일 몸살은 내일 걱정하자는 생각으로요. 해는 거의 중천에 걸려있는 듯 했지만 아침녘이라 오히려 따뜻했으며, 잠시 손을 담그는 바닷물이 오히려 시원하게 다가왔습니다.

동굴로 가는 바닷길에서 바라본 라호야 쇼어는 아름답다웠으며, 특히 샌드캐슬이라 명명하였던 어느 부자의 집에 대해서도 가이드가 설명해주었습니다. 동굴에 다달아 카약 두 척씩 7개의 동굴 중 하나에 들어갔다 나오는 체험을 하였는데, 아무런 장비없이 바닷물에 서 손수 카약을 밀고 안내하는 가이드 덕분에 안전하게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협소한 동굴입구를 통과하면 카약을 넓게 유턴할 수 있을 정도의 안락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도 물결들이 쉬고 있어 가까이 보는 재미도 있었지요. 동굴 앞에서 차례를 기다릴 땐 구명조끼에 의지해 바닷물에 들어가 수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쇼어로 돌아오는 길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해변

의 출렁이는 파도를 뚫고 마지막 파도가 거세게 밀어 선착을 도와주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역시 여러 가이드들이 앞에서 또 뒤에서 길잡이를 충분히 해 준 덕분이기도 하였지요.

오늘 카약투어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샌디에고에서 이를 직접 체험 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저희는 물론 아이들이 특히 너무나 좋아하였구요, 동문들 중 연세 있으신 대신배님들께서도 모두 안전하게 잘 투어를 마치셨구요, 좋은 시간이 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금방이라도 다시 한 번 더 가야 직성이 풀릴 기세네요. 좋은 시간의 예약에서부터 홍보, 안내, 식사, 사진, 뒷정리까지 세심하게 배려 해주신 회장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시 마시길 거듭 강조하고 싶어요~

아침부터 나와서 자리를 잡아 주시고, 바지가 젖어 가며 사진 찍어 주신 심상철 부회장님, 바쁘신 중에 준비해 주신 서정을 부회장님과 김주성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참가해 주신 동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진과 동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1281.photobucket.com/user/snuaasd/media/2015_08_15_Kayak/215_8050_zpsmzd5p.pxr.jpeg.html
 *<https://www.youtube.com/watch?v=Vj2S4i24uA&feature=youtu.be>

(글: 박주현(음대 94), 사진: 심상철(공대 81), 김주성(농대 83))

남가주 동창회 : 서울대 자유전공학부(College of Liberal Studies) L.A. 방문 간담회

본국 자유전공학부 L.A. 방문 간담회

지난 8월 12일 수요일에는, Los Angeles의 한복판 JJ Grand Hotel 2층에서 박해옥(간호 69) 남가주총동창회장이 단과대동창회장들을 모시고, 지난 반년간의 보고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단과대동창회의 협조에 감사와 부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에는 지난 4/19에 있었던 춘계골프대회와 7/25에 있었던 가족의 밤 행사를 반추하고 9/5-9/7에 Mammoth Lake에서 있을 가족캠핑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올해 남은 행사로는 10/24 추계골프대회(Industry Hill CC), 9/20 음대동문연주회(Zipper Hall), 10/17-10/31 미대동문전시회, 11월 서울대교달연주회, 11월 원로선배의 밤 등이라고 한다.

이 날에는 서울대자유전공학부(College of Liberal Studies: 학부장 한경

구(74 인류학과)의 1학년(2015학번) ~ 4학년(2010학번) 재학생 10명이 참석하였다. 4학년 박준하(10)군의 지휘 아래, 김세광(12), 김예린(13), 윤지원(13), 송예지(13), 김세현(14), 황해원(14), 이선영(14), 윤현영(14), 이준현(15)의 19세~25세의 젊은 학생들은, 8월 중 3주간 LA의 봉사기관 KYCC에 단채로 인턴십을 받으려 체재 중이다. 이들의 소식을 듣고, 총동창회(회장 박해옥)가 저녁 대접을 하게 되었는데, 임낙균(약 64)상임이사께서 멀리 Phyllan에 있는 농장으로부터 달려와 식사부터, 학생들을 기숙사까지 보내는 모든 경비를 지불해 주셔서, 학생들과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으셨다.

또한, 오랜만에 젊은 후배들을 만난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 잡지라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사랑이 듬뿍 담긴 이야기들을 꺼내놓으셔서, 1962



학번으로부터, 2015학번까지 반세기의 차이를 뛰어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지영 상임이사(사 69 영어), 이원영 미주중앙일보 편집국장(문 81 정치), 김충현 문리대회장(문 72 물리), 홍광식 자문위원장(공 62 항공)들의 말씀에 학생들이 호응을 보였다. <양민(공대 77) 남가주 서울대 총동창회 총무국장>

박인수 교수와 음악 친구들의 '네팔지진 피해돕기 자선음악회'



지난 8월 8일(토) 오후 7시에 Wilshire와 Kingsley에 위치한 St. Basil Catholic Church에서 '네팔 지진 피해돕기 자선음악회'가 열렸는데, 이 음악회는 박인수 교수가 총괄하며 전문적 프로 성악가인 그의 제자들이 출연했다.

서울음대 성악과 교수를 역임한 박인수(음대 59) 동문과 한국일보 주최 광복 70주년 음악회를 갖는 한국 최정상 남성합창단 '이 마에스트리' 공연 차 LA를 방문한 테너 김성준(백석대 교수)씨와 이성민(서울음대 강사)씨가 합세했다. 특히 남가주에서는 음대 성악

과 동문인 소프라노 서정화(음대 80), 송란(음대 81)과 테너 오위영씨 등이 출연했고 반주는 이하늘씨가 맡았다. 이들은 한국민요, 판소리, 성가, 가곡, 오페라 아리아, 칸소네, 팝송 등의 다양한 합창을 2시간 여 동안 선보였다.

이들은 모두 '박인수 소리 연구회'의 회원이며 박인수 동문의 제자들이다. 이 연구회는 박인수 교수가 58세에 목 소리를 잃고 방황했던 시절이 계기가 되어 탄생되었으며, 박인수 교수를 필두로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 성악가 제자들과 함께 발성 및 소

리에 대해 함께 연구하며, 서로를 '치유'하는 데 의의를 둔다고 한다.

박인수 교수는 “음악회를 끌어가는 것은 ‘정중과’의 호흡이다. 수백 회의 자선음악회를 가졌지만 특히 이번 무대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 잡을 것이다. 우리 연구회가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듯이 이번 공연이 이민자로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위로가 되기 바란다. 네팔 지진 피해자들도 우리 음악회의 기부금으로 잘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77세가 된 박인수 교수는 “음악은 소리의 예술이고 인간의 소리는 무한대이다. 지금도 목소리의 탄력을 유지하는 건 전통적인 성악 기법인 벨칸토 창법을 근거로 끊임 없이 소리를 연구하기 때문”이라며 “생의 마지막까지 이 젊은 목소리로 계속 노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수 교수는 서울음대와 버팔로 뉴욕 주립대학 음대, 줄리어드 음대 '마리아 칼라스 장학생', 맨해튼 음대 오페라 과정을 수료했으며 국내외 관객들로 꽉 채워져 만원이었고, 이 날 모인 1만불의 수익금 전액은 네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현지로 보내졌다.

또한 이들은 이어서 8월 14일에는 나성 영락교회에서, 8월 15일에는 열바인 은누리교회에서 열린 '크리스찬 방송 CGN 10주년 콘서트'에 출연했다. 이 연주는 박인수 교수의 '향수'로 분위기

가 한층 고조되어 관객들이 공연에 심취하는 감동적인 음악회였다. 그 소감을 송란 동문은 “클래식 음악회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 있으려면, 자연스러운 무대 연출과 대중들의 기호에 맞는 레퍼토리, 그리고 관객에 대한 매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올해 77세가 된 박인수 교수는 “음악은 소리의 예술이고 인간의 소리는 무한대이다. 지금도 목소리의 탄력을 유지하는 건 전통적인 성악 기법인 벨칸토 창법을 근거로 끊임 없이 소리를 연구하기 때문”이라며 “생의 마지막까지 이 젊은 목소리로 계속 노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수 교수는 서울음대와 버팔로 뉴욕 주립대학 음대, 줄리어드 음대 '마리아 칼라스 장학생', 맨해튼 음대 오페라 과정을 수료했으며 국내외 관객들로 꽉 채워져 만원이었고, 이 날 모인 1만불의 수익금 전액은 네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현지로 보내졌다.

시카고 동창회 : 시카고 한인 미술협회 전시회



홍인표 동문(미대 60) 과 박인숙 동문(미대 69)과 그 외 12명의 artists들이 2015 시카고 한인 미술협회 제 43회 전시회를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에서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가졌습니다.

특히 홍인표 동문께서는 지난 7월 알프스 여행에서 구상한 알프스의 아름다운 경치를 화폭에 담아 전시 하셨습니다. (김용주회장(공대 69))

북가주 동창회 :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이런 날씨를 화창하다고 표현을 한다. 바로 2015년 6월 13일 북가주 서울대동문 골프대회가 Mountain View(San Jose) Shoreline Golf Links에서 열리는 날이다.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3번의 모임을 가진 탓인지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종수(동문회 부회장 공.74)의 매끄러운 운영으로 예상 이상으로 골퍼가 74명, 호수가를 걷는 회원등 9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룬 대회였다. 이 대회를 위하여 대회장을 맡은 강정수(문.61) 동문이 \$2,000, 소식을 듣고 저녁 때 달려 오신 김경희(음.56) 동문이 \$1,000, 최왕욱(공.69) 동문이 \$500 등 20여명의 동문들이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내주시어 임원진의 마음을 날씨 이상으로 화창하게 만들어 주었다.



골프장내에 있는 Michael's Restaurant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기념품(타올)증정 및 시상식을 거행했다. 챔피언: 곽준경(법.76) / 2등: 최경선(농.65) / 3등: 김순삼 / 근점상: 박서규(법.56), 이태재(공.70) / 장타상: 박완수(자연.90) / 이대회의 가장 흥미를 끈 필드에서 두번째인 행운상: 임만직(공.56)동문이 차지했다. 특히 임동문은 아들이 사는 San Jose에 손주를 보기

위하여 잠시 왔다가 역시 서울대동문인 부인 임미자동문과 참석하고 이 상을 받았으니 정말 행운상이다. 이번 골프대회는 성공적이다. 왜냐하면 처음 서울대 모임에 모습을 보인 동문들이 있기 때문이다. 참가해주신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와 드리고 준비에 만전을 기한 임회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노고에 치하를 아끼지 않는다. <홍경삼(문 61) 북가주 동문회 이사장>

85도의 기온에 San Francisco Bay 옆에 위치한 관계로 시원한 바람은 골퍼들을 한껏 기쁘게 한다. 연세가 지긋하신 선배님은 공을 치지 않고 애꾸진 잔디를 치시며 "아이구! 예전 같지 않아~" "지금 선배님은 세상에서 제일 큰 공(지구)를 치신겁니다. 대단하십니다." 너털 웃음이 오간다.

뉴욕 동창회 : 정기 이사회 및 총회 / 광복절 경축 음악회

정기 이사회 및 총회

이날 행사의 사회는 김광수 사무총장이 진행했다. 제1부는 광복절 전 회장, 민준기 신임회장의 이·취임사, 제37대 이사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 인준, 새 집행부 구성원 소개, 이준행 골든 클럽 회장 격려사, 제36대 결산 보고, 제37대 집행부 행사 및 사업 보고, 예산안 인준 등의 순서가 있었다. 김광호(문리 62) 동문이 제37대 이사장, 수석부회장에 김도명(농대 70) 동문이 인준 받았고, 감사엔 김창수, 한경수 동문이 인준을 받았다.

동문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 회장은 사업계획 소개에서 춘, 추계 골프대회와 연말 송년회 행사 등 정기 행사와 함께 '동문친선 음악회 개최', '2016년 봄, 뉴욕근교 하이킹', 동창회 홈페이지 개선, 격월간 동창회 eNews 발행, 년회비 \$50 납부 캠페인 등을 중점 사업으로 발표했다. 제2부는 잘 준비된 디너를 즐기며, 김광호 이사장의 진행으로 단대별 이사진 소개 시간이 있었다.

'2015년 뉴욕지역 동창회 정기 이사회 및 총회'는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되었다. <김원영(미대 81) 편집위원>

민준기 신임회장은 제37대 집행부 행사 및 사업 계획, 예산안 인준 순서를 진행하며 임기 중, 이사진 및

지난 8월 11일 화요일 오후 6시반, 뉴저지 포트리 '폴립 연회장'에서 '2015년 뉴욕지역 동창회 정기 이사회 및 총회'가 동창회 이사진, 집행부 임원, 관악연대 대표 등 모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광호(문리 62) 제37대 뉴욕지역 동창회 이사장

민준기(공대 59) 제37대 뉴욕지역 동창회 회장

'광복절 경축 음악회' 개최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민준기)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6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광복절 경축 음악회'를 개최했다. 김민선 뉴욕한인 회 회장, 이종명 대 뉴욕지구 한인 교회 협의회 부회장 등 다수의 내외 귀빈과 동문 가족, 지역 동포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광복 70주년 축하의 자리를 빛냈다.

민준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광복 70주년 경축 음악회를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가 주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음악회를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음악회가 많은 분의 성원 속에 잘 진행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양군식(음대 82) 뉴욕지역 음대 동창회 회장이 지휘한 '하나 심포니 오케스트라(단장 양군식)'는 이날 주옥같은 선율로 해방의 기쁨과 관련된 국내외 가곡 및 교향악을 연주하여 참석자들에게 모국 해방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큰 감동을 선사했다. <김원영(미대 81) 편집위원>

게시판

앞으로 있을 동창회/동문들의 소식을 미리 알립니다.

제36차 SNU Homecoming Day 참가자 모집



제36차 Homecoming Day는 10월 18일 일요일에 오전 9시부터 서울대 관악 교정 접수처에 등록합니다. 미주동창회 회장단과 함께 서울대 총장실과 규장각을 방문하고 제공되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마친 후에 참여한 동문들과 가을 오후를 보냅니다.

*참석연락처: 484-344-5500 / general@snuua.org로 해 주십시오.
*숙식연락처: 02-871-4053 / www.hoam.ac.kr/rooms/reservation.php (숙식처가 필요하신 분은 호암교수회관으로 예약하십시오)

1 시카고: 장학생 모집 외

1. 장학생 모집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에서는 시카고 및 인접지역의 성적이 우수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찾아 그들의 향학을 고취시키고 도움을 주고자 2015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5명 내지 10명, 일인당 \$1,000) 자세한 응모 요강 및 응모 원서는 www.SNUAChicago.org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동문 유학생, 동문 자녀, 또는 동문들이 추천하는 기타 학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응모 마감은 10월 15일입니다.

2. 앞으로 다가오는 시카고 동창회 행사 안내
- 9월 13일: 미시가 동호회(연락처: 김영호(의대 69), 773-584-2355)
- 9월 19일: 시카고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 10월 2차: 이사회
- 10월 18일: 세종문화회 기금모금만찬(Drury Lane)
- 12월 6일(일요일): 총회및 연말 파티(Drury Lane)

2 남가주: 음대 정기연주회

오는 9월 20일(일) 오후 7시 30분에 다운타운에 위치한 Zipper Concert Hall에서 네팔지진 피해 돕기를 위한 음대 정기연주회가 개최된다. 서영란(음대 75) 음대 동창회장은 이 음악회를 통해서 동문 연주자들을 커뮤니티에 소개하고 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날 연주에는 Piano Solo 박초현(94), Piano Duet은 김미향(73)과 에스더 길, Flute에 최혜성(99), Cello에 김원선(04) 동문과 Bass 장진영(88), Tenor 김일두(98) 동문, 국악 가곡에 김동석(64) 동문이 출연하며, 장진영 동문이 지휘하는 서울대 코랄이 찬조 출연한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티켓: \$10이며 당일 날 매표구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티켓 문의: (714) 980-0922 (서영란)이다.

3 뉴욕: 한테라 동문 공연

한테라(음대 국악과 00입학) 동문의 카네기홀 데뷔 가요금 연주회가 9월 29일 오후 8시에 열린다. *티켓문의: (212) 247-7800

최옥삼씨와 함께 110주년 기념 한테라 가요금산조 전국연주시리즈 2호 '가야금 신조'를 연주할 예정입니다. 한국판 정통 클래식

9월24일 동경 스기나미공화당 소극장
9월29일 뉴욕 카네기홀 웨일러시홀
11월17일서울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4 뉴욕: 탈북난민돕기 음악회

오는 10월 4일 32회 탈북난민돕기 음악회를 알려드립니다. 가곡보급의 뜻도 펴고 고난에 처한 탈북형제들의 생애도 구제하는 음악회가 꾸준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31회 음악회도 음악회장이 가득차게 청중이 모였고 동포애와 기쁨이 넘치는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2만불의 성금이 모여 탈북자 구제에 쓰였습니다.

음악회 발전에는 오래동안 밑거름이 되어주신 고마우신 동문들이 계십니다. 수의사이신 윤상래 동문, Dr.노용면, 약대 김동환 동문, 공대 강명식 동문, 오는 음악회에도 성이현(06), 김성욱(01), 유영광(04), 서병선(65) 등 4명의 동문이 출연합니다.

이 음악회는 생명구제와 민족통일을 위한 통일음악회가 될것입니다. 끊임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서병선(음대 65)>

The New York Art Songs Association Presents

Benefit Concert for the N. Korean Refugees

제32회 탈북난민돕기 음악회

Special Guest : Renowned Violinist, Joo Young Oh
The New York Grace Women's Choir(지휘 서혜영)

Solo & Ensemble Performances

World Famous Art Songs & Korean Songs
성가, 세계 명가곡, 한국가곡

 소프라노 박진원 Soprano Juwon Park	 메조소프라노 김효나 Mezzo Sop. Hyona Kim	 소프라노 성이현 Soprano Lee Hyun Sung	 소프라노 심규원 Soprano Gyuwon Shin
 테너 김성복 Tenor Sung Wook Kim	 바리톤 유영광 Baritone Young Kwang Yoo	 피아노 김해은 Piano Haecun Kim	 테너 서병선 Tenor Byung Sun Soh

DATE: SUNDAY(일요일), October 4, 2015 at 6PM
PLACE: JHS 189 AUDITORIUM (주님의 교회, 김상태 목사)
Sanford Ave. & 146 St. Flushing, NY 11355 (Free Parking Available)
주최: 뉴욕예술가곡연구회, 두리하나 USA
후원: 한국일보, TKC-TV, J&A USA (대표 김윤호)
주님의 교회 (김상태 목사), 하은교회 (고은 목사)
행사준비위원장: 김동석 변호사

TICKETS \$15.00

에 매 처	▲반디서점 (718) 353-4411 147-24 Northern Blvd.	▲김영란 꽃집 (718) 551-7186 Flushing, NY	▲NY Art Songs (212) 567-6919 Manhattan
-------------	--	---	--

“우리도 이런 기업인 있다니”...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이 던진 ‘신선한 충격’



선후배와 함께하는 기부 레이스 서울대 모금캠페인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

서울대학교가 저소득층 재학생 생활비 장학금인 ‘선한 인재 장학금’을 마련하고자 기부 릴레이 형식의 모금캠페인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를 시작한다.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 출범식은 2015년 9월 2일(수) 새롭게 단장한 서울대 관악캠퍼스 벚꽃길 풍산마당 준공식에 이어 개최되었다.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모금캠페인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는 ‘선한·인재·장학’ 각 세 팀으로 구성되어 선발주자들이 다음 주자인 주변의 착한 동료, 선후배 등을 추천해 계속해서 기부 릴레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부 릴레이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의 선발 주자는 ‘선한팀’ 풍산그룹 류진(영문 78-83) 회장, ‘인재팀’ 인현운수 박성훈 이사, ‘장학팀’ 이순재(철학 54-58) 배우로 정해졌다.

서울대학교는 성낙인 총장 취임 이후 2014년 11월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더불어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엔 시작하는 모금캠페인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를 통해 장학금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계소득 1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학생 전원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015. 9. 3. (재)서울대발전기금 <서울대뉴스>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 1번 주자 소감		
<p>선한팀: 풍산그룹 류진 회장</p> <p>“나보다 앞서 우리를 생각하는 선한 인재를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실현하길”</p>	<p>인재팀: 인현운수 박성훈 이사</p> <p>“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p>	<p>장학팀: 이순재 배우</p> <p>“나눌 수 있어 즐겁고, 앞으로 모교와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p>

“대기업 총수(總帥)가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준용 쇼크’가 재계(財界)는 물론 우리나라 전반의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 10대 그룹 고위 임원은 8월 18일 이준용(77세, 서울대 경제학과 57) 대림산업 명예회장이 전 재산 2000여억원을 통일나눔펀드에 기부한다는 소식에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한국적 정서를 넘어 전 재산을 통일을 위해 쾌척한 데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명예회장의 기부 소식은 이날 주요 그룹마다 임원 회의에서 거론될 정도로 재계에서 단연 화제가 됐다. 5대 그룹 임원은 “너무 놀라운 뉴스여서 아침 임원 회의에서 도대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서로 물었다”면서 “최근에 본 뉴스 중에서 가장 놀라운 뉴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행복한 기부 세상을 향한 따스한 동행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사는 사이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동행해 온 부부의 생각은 ‘나눔’이라는 결정 앞에서 다르지 않았다.

부부는 일심동체(一心同體)

이광희 동문과 아내 서동신 여사가 인생을 동행하며 기준으로 삼은 것은 ‘더 나은 삶’이다. 두 사람이 부부로 헤로한 지도 어느덧 만 50년. ‘부부는 닮는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나란히 선 부부의 미소는 오누이 같다. 두 사람은 외모만이 아니라 생각이 닮았으니, 금혼식을 앞둔 부부의 노후계획 속에는 ‘나눔’이 있었다. 이광희 동문이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부를 결심했고, 서동신 여사가 흔쾌히 그 결정을 응원하면서 서울대학교에 장학기금을 마련한 것이다. 부부는 2010년에 장학기금 개설 후, 2012년에 추가 약정을 결심하며, 지리학과를 비롯한 서울대학교의 우수 인재양성에 힘을 보태었다.

“남편은 한결같은 먼저 앞을 내다보고, 다음 일을 계획해 왔습니다. 여러모로 배울점이 많은 양반이죠. 장학기금을 만든 후 남편이 장학생들과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좋은 결정이었다! 싶더군요.”

이광희 동문이 기부를 실행에 옮기는 데 가장 큰 지원군이 되어준 서동신 여사가 나눔의 보람을 공유한다. 일가를 이룬 자녀들 역시 각각의 자리에서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니, 부모가 나눔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꾸준히 교육해온 까닭이라.

나눔의 의미를 전해준 스승을 기리다

이광희 동문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재학시절에 많은 가르침을 준 은사가 있다.故 육지수 교수는 서울대학교에 지리학과를 처음 개설한 대표 지리학자. 이광희 동문은 그 스승에게서 학문을 넘어 삶의 자세도 배웠다. 은사를 기리는 마음으로 장학기금 명칭도 ‘육지수·이광희 희망 장학기금’으로 지었다. “선생님은 평소 강의 외에는 말씀이 거의 없으실 정도로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진로문제는 물론 인성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둔 따뜻한 분이셨어요. 좋은 일에 얼굴을 내밀기보다 ‘곤란



에 처한 이들에 대한 도움과 위로’를 실천할 것을 늘 강조하셨죠.” 장학기금을 만들면서 장학생 선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성적’이 아닌 ‘성실’이다. 어려운 환경으로 공부할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한 친구가 입학후 7년만 만에 졸업을 한다고 해요.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다시 학교에 다니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졸업이 늦어졌죠. 장학금 덕분에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런 친구들에게는 작은 금액의 장학금도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상속의 의미를 다르게 바라보다

이광희 동문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조언도 ‘성실’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며 한국관광의 세계화에 기여한 그가 사회에서 체득한 교훈이다. “일단 사회에 나가면 서울대학교 간판은 잊어야 합니다. 학교자랑하는 친구들치고 실력 좋은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긍정적인 자세와 역동적인 실천력을 지닌 인재를 조직에서는 중용합니다.” 부부의 나눔은 선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재들을 키우는 밑거름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나눔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이광희 동문과 서동신 여사는 이를 위해서 ‘상속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강조한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자녀들도 적지 않고요. 사회 전반에 활발한 기부가 이루어지려면 상속문화 바꾸는 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동문 부부에게 ‘나눔의 실천’은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자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정신적인 가치를 자녀들과 사회에 전하려 애를 쓴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한 이광희 동문은 한국관광공사 개발본부장 및 기획관리본부장을 역임했으며 국무총리 표창 및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배우자 서동신 여사와 뜻을 모아 ‘육지수·이광희 희망 장학기금’을 출연했다.

<SNU 미디어>

칼럼 노동자들은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강민정기자, mj1280@snu.kr>

내가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 하루 4-6시간만 일한다. 육아, 퇴직 준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장된다. 전일제 노동자보다 짧은 시간 일하지만 차별받지 않는다. 이 일자리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로, 정부 정책에서는 ‘시간선택제’라고 불린다.

시간선택제, 내가 선택하는 근무 시간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2월 ‘일가양득 캠페인’을 선포함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출산 후 육아가사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같은 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이 핵심 국정 과제로 발표되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정규직만으로 20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추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시간선택제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지급하고 전일제와 차별 없이 대우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매달 80만원 한도에서 월급의 50%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지원으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이제 고용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간부문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시간선택제 노동자는 2013년 1,294명에서 올해 5,800명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수는 2013년 328개에서 올해 2,328개로 크게 증가했다.

유연한 고용인가 저임금·단기직 일자리인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가장 반기는 이들은 일과 가정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던 경력 단절 여성들이다. 일하는 시간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1월 ‘스타벅스 리턴맘파리스타’로 재입사한 이현진 씨는 평일 오전부터 점심 러쉬 시간까지 일한다. 대학 졸업한 때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 입사한 이후 결혼을 하며 직장을 떠난 지 10년 만이다. 두 아이의 엄마인 이현진 씨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오전 10시에 출근해 아이들이 돌아오는 오후 2시까지 일한다. 이현진 씨는 “하루에 4시간 일하지만 부정장으로서 정직원 대우를 받는다”며 “처음엔 남편이 한창 애들을 돌봐야 하는 시기에 일을 시작하게

됐다며 걱정했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돌보고 즐겁게 일도 하는 걸 보며 안도한다”고 전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경력 단절 여성 외에도 장년층, 청년층에게도 안성맞춤이다. 장년층은 점진적으로 퇴직을 준비할 수 있으며 퇴직 후 제2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또 청년층은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다. 공부하는 동안에도 실무 경험을 쌓으며 취직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하면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 따르면 다수의 기업들이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이유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 시스템 마련’(45.1%)을 꼽았다. 특정 시간이나 요일에 업무가 몰릴 때 시간선택제 노동자를 활용하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전일제로 채용하기엔 인건비 부담이 큰 고급 인력을 시간선택제로 고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시간만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일자리는 늘었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임금, 단기직의 단순 보조업무로 질이 낮다는 지적이다. 우선 시간선택제로 일해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겁다. 2013년에서 2014년



수 있다. 또 청년층은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다. 공부하는 동안에도 실무 경험을 쌓으며 취직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하면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 따르면 다수의 기업들이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이유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 시스템 마련’(45.1%)을 꼽았다. 특정 시간이나 요일에 업무가 몰릴 때 시간선택제 노동자를 활용하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전일제로 채용하기엔 인건비 부담이 큰 고급 인력을 시간선택제로 고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시간만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일자리는 늘었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임금, 단기직의 단순 보조업무로 질이 낮다는 지적이다. 우선 시간선택제로 일해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겁다. 2013년에서 2014년

별도의 훈련 없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종에만 시행 가능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노동자를 모집하는 직종 중 67.2%가 콜센터, 판매, 매장 관리 등 단순 보조업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은 “고용시장에서 노동시간이 짧은 직종은 이미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규직 일자리를 두 개, 세 개로 쪼개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주 입장에서 소위 ‘반듯한 시간제’로 불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창출되면 현재 183만명에 달하는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의 질도 함께 올릴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 따르면 시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시간선택제처럼 정규직 수준에 맞추기 위해선 연간 7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운 고용 형태에 맞춘 인사운영이나 근태관리 등의 기반을 갖추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 노무법인 유엔 안원복 노무사는 “일자리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퇴직금이나 관리비 부담이 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만만찮다”며 “회사 측도 시간제 일자리를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고 채용하기 보단 외부적 유인이나 요청에 의해 형식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이유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 시스템 마련’(45.1%)을 꼽았다. 특정 시간이나 요일에 업무가 몰릴 때 시간선택제 노동자를 활용하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전일제로 채용하기엔 인건비 부담이 큰 고급 인력을 시간선택제로 고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시간만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일자리는 늘었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임금, 단기직의 단순 보조업무로 질이 낮다는 지적이다. 우선 시간선택제로 일해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겁다. 2013년에서 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사람이 바뀌어도

시간 22일(금)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2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자리의 질 문제를 중심으로 시간선택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현장의 반응에 귀 기울여 앞으로 시행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패널들은 시간을 두고 현재 시간선택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패널로 참가한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시간선택제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관한 주도권을 쥐어주는 제도”라며 “앞으로 10, 20년간 다듬어야 안정화될 고용 모델이고 지금은 개선해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두 들 맞은 시간선택제, 시간이 필요해

시간 22일(금)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2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자리의 질 문제를 중심으로 시간선택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현장의 반응에 귀 기울여 앞으로 시행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패널들은 시간을 두고 현재 시간선택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패널로 참가한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시간선택제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관한 주도권을 쥐어주는 제도”라며 “앞으로 10, 20년간 다듬어야 안정화될 고용 모델이고 지금은 개선해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시간 22일(금)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2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자리의 질 문제를 중심으로 시간선택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현장의 반응에 귀 기울여 앞으로 시행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패널들은 시간을 두고 현재 시간선택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패널로 참가한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시간선택제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관한 주도권을 쥐어주는 제도”라며 “앞으로 10, 20년간 다듬어야 안정화될 고용 모델이고 지금은 개선해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시간 22일(금)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2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자리의 질 문제를 중심으로 시간선택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현장의 반응에 귀 기울여 앞으로 시행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패널들은 시간을 두고 현재 시간선택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패널로 참가한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시간선택제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관한 주도권을 쥐어주는 제도”라며 “앞으로 10, 20년간 다듬어야 안정화될 고용 모델이고 지금은 개선해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은퇴 후의 삶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어린이 심장병 환자를 돌보다

의학과 최정연 교수 ▶

30년 넘게 소아과 심장전문의로 환자들을 돌보다 정년 퇴임을 앞둔 최정연 교수는 “2014년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에 있는 셰이크 칼리파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UAE 근무를 신청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한다. 그는 “정년 퇴임 후에도 셰이크 칼리파 병원에서 계속 소아 심장 의사로 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아과를 선택한 것은 아이들이 좋았기 때문이고, 소아 심장학을 전공하게 된 것은 나의 스승님을 따라서였다”고 회상하는 최 교수는 2000년대부터 분당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이 주관하는 해외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해 몽골, 이라크, 캄보디아 등지에서 의술을 펼쳐왔다. <대학신문에서 발췌>

편지: 소중한 장학금에 감사드리며

하틀랜드 지역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서울대학교 하틀랜드 지역 동창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UMKC Conservatory of Music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허영주입니다. 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시고 후원해주신 동창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가을, 학교에서 수업과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 번도 개인적인 우편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제게 자필로 쓰인 주소가 적힌 우편 봉투가 와 있었고, 학교 외에 제 이름과 주소를 아는 누군가가 있다는 데에 의아해 하며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미 장학생 선발 일자가 꽤 지난 시점이었기에 그것이 서울대학교 하틀랜드 지역 동창회로부터 온 장학금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추가적인 설명 없이 우편으로 온 장학증서와 장학금으로부터 저는 말로도 글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감사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장학생 선발 후 제게 수여식 초대장이 보내졌으나, 그때 저의 거처와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하고 수여식에도 참여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원서에 기재하고 임시로 기거하던 친구 집에 거주자로 제 이름을 올리면서 제 이름으로 오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었고, 그 후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 수신 장학금을 어떻게 하면 값지게 쓸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는 생활비가 매우 필요했고, 그런 저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쉽게 쓸 수 있었지만, 그 장학금이 저의 학업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에 그 목적이 맞추어 현명하고 값지게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저만의 방을 가지며 렌트비를 지불하며 사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 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선물같이 주어진 장학금은 저의 걱정을 계획으로 바꾸었고, 저는 그것으로 겨울 방학을 에콰도르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6주간의 겨울방학 동안, 저는 에콰도르에 계신 한 선교사님 가정에서 지내면서 제가 전공하는 음악을 매개로 봉사했습니다.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음악 이론과 리코더를 가르치고, 바이올린 특별 수업을 함으로 아이들과 음악을 연주하는 기쁨을 나누고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주말 시장에 가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장사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시장에서 노숙하는 어린이들을 모아 씻겨주고 치료하고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또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고, 안데스 산맥에 올라가 소수민족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음악이 저를 어떻게 치유하였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에콰도르에 가기 전까지 저의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연주 전공으로 바이올린을 공부해왔지만, 저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연주하기 보다는 제 음악으로, 제 연주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저는 그 전에 연주해보지 않은 환경에서 연주했습니다. 익숙한 좋은 음향 시설과 조명과 무대는 없었고, 들을 준비 되어 있는 관객들 또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만 있으면 쓰레기가 널려있는 시장 바닥에서, 산마루에서, 비탈 길에서, 전기가 없어 빛이 잘 들지 않는 동굴 속에서 어

디든 제 바이올린 케이스를 내려놓고 악기를 꺼내어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곡을 들려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가르치면서, 음악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음악 치료를 공부해야겠다는 필요를 간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후, 신기하고도 감사하게도 봄 학기 동안 인터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저의 진로 탐색의 연장선으로 저희 학교 음악 치료 학과장 교수님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의 학업 진로와 비전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하틀랜드 지역 동창회 장학금 덕분에 저의 거처를 해결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며, 미래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한 확고한 비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2학년을 마치고, 열흘 후 시작되는 여름 학기에 음악 치료 공부를 위한 선행 수업을 들음으로 복수 전공을 준비할 것입니다.

제게 주신 소중한 장학금에 감사드리며, 그 후원이 2014-2015년의 제 삶과 학업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쳤는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쓰임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21일
허영주 드림

편지: 서윤석 동문께

동창회보가 만들어 준 인연

“서윤석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원동국민학교를 1955년에 졸업하였으며 부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중학교때부터는 서울에 올라왔지만 작고하신 부모님이 부산동에 집에 늘 계셨고 지금도 동생이 그곳에서 살고 있어서 부산동은 저의 고향입니다. 대전 공설운동장이 생기기전, 밭갈이 면 논밭을 밟으며 인동에서 보문산땀 집으로 걸어 다니던 무섭던 기억이 나고 식당상 위로 날아가던 헬리콥터를 향해서 돌팔매를 던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곳 수도 워싱턴에는 김행자시인이 대흥동에 살았단데... 이분은 숙대 약학과를 나온 분이요... 또 한분은 대전고를 나오고 재와 의대동기이신 정재성 장로의 부인도 대흥동에서 살았고 서울음대 성악과를 졸업하셨다는군요. 이분들도 이 보문산의 봄을 읽고 감흥을 표하셨습니다.

보문산은 명산입니다. 혼자서 올라가 보기도 하고 국민학교때는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점심을 못가지고 따라간 저를 보고 자신의 점심을 나누어 주던 친구도 생각납니다. 아, 그 이름은 잊었지만 고마운 친구였지요.

박취서 수필가님, 동창회보에 올리신 독후감은 참으로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좋은 글을 올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동창회보 254호에 서윤석 동문이 쓰신 “보문산의 봄”을 읽고 쓴 저의 글 “보문산의 봄을 읽고”(회보 255호)에 대해 서동문께서 위와 같은 E-mail을 보내주셨다.

이에 대한 답신으로 Fullerton Public Library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E-mail을 Send out하였다.

Dear Dr. Seo:

Thank you for your E-mail. I really enjoyed your poem and decided to write about my feelings on your poem, recollecting the years of my life at Taejon City from 1953 through 1960 before I came to Seoul to study at SNU College of Pharmacy. I am writing and sending this E-mail at Fullerton Public Library, because I don't have internet service at home. That's reason why I am answering you in English. I wish you don't get insulted about receiving this E-mail in English, not Korean. It's very nice to get to know about you and I would like to see you and have a get together meeting if you have a chance to visit this Southern California area. My home phone# is 714.870.6693. Thank you again for your E-mail.

From Fullerton, California Chui Suh Park

우리들의 인생살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사람은 한번 만나후 후에는 다시 말을 나누고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무엇인가 끌리는 매력이 있어서 다시 만나서 대화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도 있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책읽기도 마찬가지로여서 어느 책을 읽은 후에는 그 책을 쓴 사람을 만나 보아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저자가 있는 반면에 어느 책은 한 번 읽고는 더 이상은 읽고 싶은 마음이 없게 하는 책들도 있다. 사람이 쓴 글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번에 서동문께서 나에게 보내 주신 E-mail을 읽고는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 2009년에 발간한 미주 동창회명부를 뒤적이어서 서동문의 전화번호를 찾아 훑어나 하는 마음으로 통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아무튼 문학평론가도 아닌 필자가 더 깊은 뜻이 있을 듯한 서동문의 시를 내 나름대로 감상해 보았는데 훌륭하다고 칭찬을 해주시었고 글을 좀 쓰기는 하였으나 수필가라는 title까지 주시면서 향수어린 어린시절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답장을 보내 주시었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곳 남가주에 올 기회가 있으시면 필자에게 연락을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남가주 Fullerton에서 박취서 드림>

영화이야기

클림트의 ‘Woman in Gold’를 본 후



임연철 (문리대 68)

다. 남녀 모델의 입맞춤 전신 장면에서 관능미를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르누보라는 클림트 당시의 예술적 경향을 짚게 느낄 수 있기에 단순히 키스의 관능미만 느껴지지 않는데서 클림트 작품의 묘한 이중적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같은 이중적 매력은 2009년 서울 예술의전당 전시 당시 최고의 대표작으로 아직도 뇌리에 박혀있는 클림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유디트(Judith)’에서도 느껴진다. 유디트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앗시리아의 침략을 저지하는데 앞장선 구국의 여걸로 기록된 인물. 가슴과 복부가 흰색 드러나는 옷을 입은채 눈동자가 풀린 모습의 유디트는 첫 눈에에는 유부모 보인다. 그러나 그의 왼손 하단에 절반만 보이는 얼굴이 고대 이스라엘을 침략한 앗시리아의 적장 홀로페르네스로 유디트가 살해한 얼굴임을 아는 순간 유부는 구국의 여걸로 이미지가 바뀐다.

유디트는 이스라엘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이지만, 클림트가 그린 유디트의 모델은 아델레 블로흐-바우어 부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클림트의 걸작으로 초상화인 ‘아델레 블로흐-바우어’를 소재로 한 영화 ‘우먼 인 골드(Woman in Gold)’를 며칠 전 보면서 클림트 작품의 또 다른 이중적 매력을 알게 되었다. 클림트의 작품 ‘키스’도 ‘유디트’도 금박을 사용해 주인공은 금박 찬란한 장식 속의 여성들이지만 ‘우먼 인 골드’에 나오는 초상화 ‘아델레 블로흐-바우어’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작품이다. 미모의 여성이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그림

동문칼럼



한정민 (농대 81)

던 여중생. 문학소녀 흉내를 내며 예쁜 편지지에 좋은 글귀나 감동 어린 시귀를 적은 손편지를 주고 받던 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새침해진다.

상당사로 일하게 된 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 때 즐겨 읽던 푸쉬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자주 생각난다. 꿈 많은 여중생이 얼마나 삶에 속았다고 그 시귀를 공감하고 읊조리고 다녔는지... 지금 돌아보니 피식 웃음이 난다. 어른이 되면서 삶은 결코 교과서의 가르침처럼 녹비치 않고, 나의 계획과 무관하게 터지는 예측불허한 일들이 삶을 송두리채 바뀌놓을 수 있음을 배웠다. 내담자들이 찾아와 삶이 자기를 어떻게 속였는지 보여주 듯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꺼내놓으며 억울해하고 분노한다. 그래서 시인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했나보다.

은 섬세하면서도 강한 자존심이 돋보이는 표정이다. 그러나 얼굴, 손, 어깨부분만 사실적으로 표현했을 뿐 나머지는 금박 의상과 배경으로 채웠으니 작품은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다.

그러나 이 작품이 오스트리아 빈의 벨레테레궁에 걸려 있다가 2006년부터 미국 뉴욕의 노이에(Neue) 미술관에 걸리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를 보게 되면 화려한 그림과 함께 나치의 만행과 그 만행의 피해자에 대해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오스트리아 관료들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에서 클림트 그림에 또 하나의 역사가 새겨졌을 느끼게 한다. 일제의 감압적인 식민통치와 문화제를 수탈당한 비슷한 경험을 우리도 갖고 있기에 이 작품에 얽힌 사연이 남의 이야기 같지만 않은 것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리아 알트만이라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 여성의 고모가 작품 속 모델이자 그림의 소유자인 아델레 블로흐-바우어 부인이다. 빈의 부유한 금융업자 부인이었던 아델레는 나치가 빈을 점령한 후 유대인이었던 탓에 그림들을 모두 나치에게 뺏기고, 초상화는 벨레테레 궁에 걸려 전시되게 된다.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마리아는 아델레 고모 부부가 언니와 자신에게 그림들을 유언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8년간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그림을 돌려주도록 요구하는 재판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당국은 마리아가 나치의 박해로 빈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림도 강제로 빼앗긴데 대해 사과는 커녕 오스트리아 국가 소유임을 주장한다. 긴 재판 끝에 고모가 소유했던 작품 5점을 돌려받는다는 결론이다. 영화가 끝날 무렵 자막에는 사과를 거부한 오스트리아 대신 미국으로 작품을 가져와 뉴욕의 노이에(Neue) 미술관에 영구 전시되도록 하는데 초상화 ‘아델레’의 작품 한 점 가격만 1억3500만 달러나 했다는 내용이 떠오른다. 노이에 미술관은 화장품 회사 에스더로더의 소유주가 세운 곳으로 마리아는 받은 돈 대부분을 L.A.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건립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8년의 소송 끝에 그림을 되찾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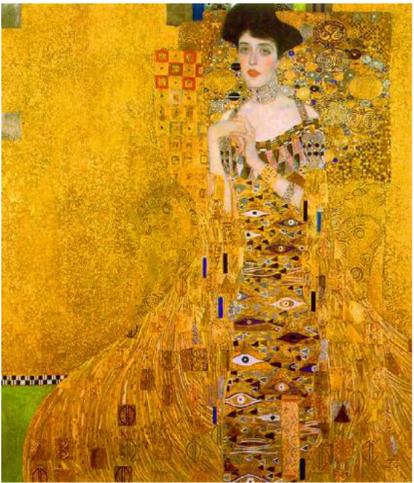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런데, 문득 ‘삶이 우리를 속인건가? 아니면 기대한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내가 속았다고 믿는건가?’란 질문이 마음에 던져진다. 나는 삶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 ‘실용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라고 말하지만, 정말 즐거운 날이 꼭 오는가? 이러한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혹시 내가 속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삶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각과 관점을 되짚어 본다. 철학자 에픽테투스(Epictetus)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생각 혹은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끔씩 다시 꺼내 읽어보는 책 중에 정진과 의사 스타트 펙(M. Scott Peck)의 ‘아직도 가야할 길(The road less traveled)’이 있다. 폭설에 집에 갇혀서 오랫동안 다시 꺼낸 첫장 첫 줄에 쓰여진 ‘인생은 힘들다(Life is difficult)’란 글귀 앞에 멈춰 섰다. 이제야 이 한 문장이 진심으로 가슴 깊이 인정된다.

‘맞다... 이게 인생인지.’ 진심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지?’라는 문제해결 의식이 꿈틀거린다. 많은 내담자들이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아는 데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왜?’라는 질문에 묶여 있다.



을 보며 일제 강점기 수탈당한 문화재 반환이 얼마나 지난(至難)한 일이 될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만든다. 일본 정부는 광복 70년이 아 되도록 위안부로 당했던 당사자가 살아있는데 아직도 일제가 직접 모집한 게 아니라고 부인하는가 하면, 미스비시 같은 회사는 중국인 노동자에게는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보상하는데 반해 한국인 노동자들은 경우가 다르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실제 당사자가 살아서 증언하는 사항도 외면하는 일본에 대해 소재조차 모르는 수탈 문화재가 반환될 가능성은 요원하게만 보인다.

‘우먼 인 골드’에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아델레의 초상화가 여주인공 마리아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오스트리아에서 전시하도록 타협만 했어도, 해당 작품은 빈의 벨레테레 궁에 지금 전시돼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치의 행위를 기정사실화하며 사과도 보상도 거부한 결과, 오스트리아 정부는 클림트의 명화 5점을 잃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잃은 것은 그림뿐만이 아니다. ‘우먼 인 골드’가 세계적으로 상영되면서 체면도 잃었다. 일본에게도 ‘우먼 인 골드’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기를 바란다. <건양대 교수>

계획하고 꿈꾸는 아름다운 삶이 보이는데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 많은 경우 배우자나 자식 - 때문에 내가 꿈꾸는 삶을 이룰 수 없다고 속상해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바꾸려고 에너지와 열정을 쏟지만 꿈쩍도 안하는 그 때문에 분노하고 절망한다.

그러나 삶은 문제들의 연속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일들이 지금도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 책이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 가득한 현실이 내가 만나는 내담자들의 삶에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삶은 문제들의 연속’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일단 받아들여지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의지와 어떻게 해결할가에 대한 방법에 에너지를 쏟게 된다. 문제를 무시하거나 피하면 시간은 해결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올을 경험으로 우리는 배웠다. 문제를 받아들이는 용기와 지혜 또한 필요하다. 함께 문제를 풀어줄 조력자나 잘 훈련된 상담사를 찾거나 좋은 책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도 있다.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을 피할 수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problem solving)로 관점과 시각을 바꾸는 일. 그 것이 삶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워싱턴 가정상담소 카운슬러>

My Story & Your History

My Story and Your History는 동문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있는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 합니다. My Story and Your History는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보며 인생의 세잎 클로버를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절고 찬란했던 시절을 서울대라는 같은 공간에서 보내고, 또 다시 이곳 미주에서의 삶으로 다시 공통점을 갖는 여러 동문님들의 인생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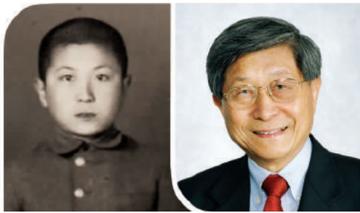
산티아고 순례길에 Garrion 계신 수녀님은 순례자들에게 산티아고 길을 걸으려면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이 빛과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My Story and Your History에서 서로 Share하는 선배 동문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후배 동문님들에게 Light과 Force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 이메일 news@snuua.org로 동문님의 그리운 과거사진 한 장과 현재사진 한 장 함께 보내주세요. 많은 동문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담당: 허유선(가정대 83) 편집위원)

1. 간단한 동문님 소개와 이민동기
2. 동문님의 인생에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나 삶의 철학, 좌우명?
3. 미국의 첫인상이나, 동문님께서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4. My Favorite Things : 책 음악 영화 음식 사람 장소 등등
5. 동문님이 자랑하고 싶은 특별 건강관리 비법은?
6. 만일 과거 서울대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하고픈 일이나 미래의 Bucket list?
7. 서울대 미주동창회와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의견

"My Best Friend is the One who brings the Best in Me." -Henry Ford

01 이용락(Chicago, 기계 48)



1. 유학하기 전 1964년 부산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Fulbright fellowship으로 university of Illinois-Urbana 대학원으로 유학, Ph.D 학위수여 후, 시카고 소재 Borg-Waner 연구소에서 약 17년간 연구 생활하였다.
2.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정책으로 낙후된 한국 공업의 선진화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공과대학에 진학, 열심히 일한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3. 1978년 재미과학자 초빙으로 귀국했다면 더 큰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것 같다. 그러나 만일 그랬다면 한국에서 벌써 25년 전 은퇴하고 지금처럼 일할 기회를 놓쳤을 수 있으니, 1978년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고 있다.
4. 세계 여러 곳에 다녔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Argentine Buenos Aires이다. 근 200년 전에 이미 12차선의 도로가 건설되어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5. 아내와 하루 40분 정도 같이 걷기, 영양을 생각하며 꿀고루 소식하기, 의사 말 잘듣기, 하나님을 믿으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6. 만주 길림성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싶다. 모교인 길림 중학교를 방문해 보고 싶다. 20대 유학했던 Strathclyde University 근교 하숙집도 가 보고 싶다.
7. 미주 동창회는 미국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 단체인 만큼 회칙에 준수된 활동과 사업으로 모교와의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가길 바란다. 동창회보는 재미 동문간의 networking 수단이고 동문들간의 삶의 지혜와 가치를 나누는 토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

02 민준기(New York, 공대 59)



1. 공대 섬유공학과를 59년 입학, 군복무 이후 65년 졸업하였다. Retired 후 Upstate NY 시골 마을에서 부인과 평화롭게 살고 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미국에서 보내고자 80년대 후반, 늦은 나이에 이민을 선택했다.
2.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의 원천이고 인생의 의미이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뉴욕지역 동창회장을 맡아서 영광이다.
3. 만일 한국에 있었다면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았을 것 같고, 일찍 명퇴하여 노후가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다.
4. 좋아하는 책은 자서전, 역사물, documentaries 같이 non-fiction 종류, 클래식 음악, Art song 부르는 걸 즐긴다. 성악레슨을 받으면서 음악을 더욱 즐기고 있다. 특별히 인간미 있고, 솔직하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을 좋아한다.
5. 여러가지 음식을 꿀고루 섭취하고, 소식을 절저하게 지킨다. 매일 적당한 시간의 운동을 꼭 한다.
6. 세계 명소 여행하기. 광범위한 분야의 동양 고전 읽기. 성악 공부에 열심히 하여 개인 독창회 열기.
7. 동창회와 동창회보가 잘 협조 유지되어 많은 동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미국 대학들의 alumni처럼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동문회 행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03 구명순(Kansas, 간호대 66)



1. 1970년 대학졸업 후 한국에서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첫 아이 출산하고, 1979년 가족과 같이 취업이민 했습니다.
2. 지금 생각해 보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픈 일은 4년의 서울대 생활이고 그것이 나의 일생을 좌우했고 그 전공으로 일생을 professional로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 다.
3. 만일 한국에서 그냥 살았다면 학교에 남아 교수가 되었을 것 같고 지금은 은퇴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4. Classic 음악을 좋아하고 특히 쇼팽의 피아노곡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책은 Road, 영화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좋아합니다.
5. 자랑하고픈 특별 건강법은 요가와 걷기, 충분한 수면입니다.
6. 중동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지역을 걱정없이 여행하는 것이 지금의 bucket list입니다.
7. 숨겨진 동문발굴에 힘써야 하고, 젊은세대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ld 세대의 권위보다는 젊은 세대의 진보 자유적인 생각과 행동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4 오태요(Nebraska, 의대 56)



1. 의대 56학번 62년 졸업입니다. 미국에서 더 좋은 의학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과 한국에서의 빈곤과 불행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에 왔다.
2. 내가 지내온 빈곤을 물리치고 두 자녀를 미국의 좋은 대학에 보내어 다 훌륭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3.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신경내과 의사로서 같은 길을 걸었을 것 같다.
4. 모든 종류의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며 특별히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과 Egypt, Israel, Petra, Italy .. too many places.
5.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잘 먹고, 잘 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가능하면 유쾌하고 명랑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면 된다고 믿습니 다.
6. 남북통일이 되어서 마음대로 왕복할 수 있는 것.
7. I hope all Korean change or give up the self-righteous and self-centered behavior or philosophy. I firmly believe those attitudes and philosophy is the product of history of dynasties. The mutual self help is the most important.

05 제영혜(LA, 가정대 71)



1. 미국 이민동기는 미주 실업자와의 사진결혼, 막차를 탄 속은 결혼
2. 내 인생의 하고싶은 일을 하며, 즐기는 삶을 살아온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3.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정치가의 안사람으로 공짜돈을 잘 챙기다가 남편 청문회도 보내고 jail 에도 보내고 하지 않았을까...
4. 자연 속에 있는 바다나 산으로 멋있게 자리 잡은 골짜기를 특별히 좋아하고, 꼭 가보고 싶다. Andre Rieu의 concert를 좋아한다.
5. 자랑하고픈 건강 관리법은 좋은 음식으로 소식하는 것과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 보통 월, 화, 수는 에어로빅을 하고 화, 목, 일 은 골프, 토요일은 산행을 한다.
6. Bucket list는 St. Andrews에 가서 골프치기, 마추픽추 등반하기, Andre Rieu concert 가기
7. 동창회에 바라는 사항은 본부를 LA에 두어 2년 마다 이곳저곳 바꿈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도 줄이고, 지속적인 회보 발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회장이 어느 지역에서 나오든 동창회 사무실은 한 곳에 두는게 효율적일 것 같다.

06 홍지복(Kansas, 간호대 70)



1. 간호학교에서 영어로 된 교과서를 제한된 영어수준으로 번역해서 가르치는 일에 신물이 나서 미국에서 공부를 다시하고 교과서를 한국어로 써서 가르치고 싶어서 1978년 12월 미국에 왔지요. 1985년부터 한동대학교(1695년 설립)에 다니고 1986년부터 한집에서 살고, 1987년부터 한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단순한 삶의 연장이지만 세아들이 동대학교를 나와서 이젠 엘에이에서, 뉴욕에서, 캠퍼리지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이들 때문에 잘 알려진 삶이 되었어요.
2. 공평성이라고 하나요. Fairness. 작은 들꽃도 꽃다운 생존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새우를 먹지 않습니다. 경기도 남양 어느새우양식장을 지나게 되었는데 웅덩이에 가득한 새우들이 움직일 수 없어 바글거리는 것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새우는 바다가 좁아서 허리가 굽었다고 우수개소리를 들었는데, 흙물웅덩이에서 살찌우는 인공양식을 먹으며 통통해진 새우들의 생존이 처참했어. 우리들의 양식이기 전에 새우로서라도 잘 살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3. 인권운동, 환경보호운동, 정의로운 사회 구현운동
4. 일하는 것, 동네 작은 병원에서 심심풀이로 쉬엄쉬엄 일하고 있지만, 그것은 곧 내운동(exercise)이고, 봉사(service)이고 치료(therapy)가 됨이 자랑이고 즐거움이지요. 진통 후 태어나는 아기들을 돌보는 일, 산모의 회복을 도와 주는 일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최근에 읽은 책 Reza Aslan이 쓴 ZEALOT(The life and Times of Jesus of Nazareth)을 다시 읽어 보고 싶네요.
5. 집안의 내력으로 조금 당뇨끼가 있습니다. 검사수치로는 정상이지만, 당뇨증을 생각해서 조금씩, 자주, 그리고 즐겁게 먹습니다. 일을 통해 항상 밝게, 웃으며, 고맙게 사람들을 만나고 커피함을 좋아해서 자주 커피를 내려서 대접합니다.
6. 동네교회에서 모이는 독서클럽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 독서량에 따라 가지 못함이 아쉽지요.
7. 동창회보가 많이 밝아졌어요. 긴글을 제목 외에 흥미기엔 인터넷시대에 걸맞을 수가 있어요. 읽어 보고 싶은 글 어랜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재미있어야 되고 유익해야 되고 시대에 맞아야 되겠지요. 보수와 진보가 같이 공존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어요.

소셜시큐리티 퀴즈 결과

7월호에 게재된 소셜시큐리티 퀴즈 정답을 다 맞춰 100점 맞은 동문; 이익삼(사대 58, CA), 고일석(보건대학원 69, RI) 두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예상보다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참여해주신 모든 동문님들에게도 격려상품을 드립니다. 아래 질문과 답을 참조하십시오. (편집위원회)

Do you think you could pass the Social Security quiz?
With permission from MassMutual, we've shared the full quiz and answers below:

1.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are based on my earnings history, so I'll receive the same monthly benefit amount no matter when I start collecting.
2. If my spouse dies, I will continue to receive both my own benefit and my deceased spouse's benefit.
3. I must be a U.S. citizen to collect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4. Under current Social Security law, full retirement age is 65.
5. I can continue working while collecting my full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 regardless of my age.
6. If I file for retirement benefits and have minor dependent children, they also may qualify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7. As a divorced person, I can collect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based on my ex-spouse's earnings history.
8. Once I start collecting Social Security, my benefit payments will never change.
9. Government workers may have their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reduced.
10. My spouse can qualify for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even if he or she has no individual earnings history.

(Source: MassMutual)

▶▶▶ 답: 1. F 2. F 3. F 4. F 5. F 6. T 7. T 8. F 9. T 10. T

동문칼럼 “모두 바람에 날리는 먼지일 뿐”



김인종(농대 74)

아마 35년 전? 후배들의 정기공연에 'Dust in the Wind'가 발표곡으로 들어갔다. 무디블루즈(Moody Blue)의 런던 오케스트라 협연을 부러워했지만 꿈같은 일이고, 캔사스의 더스트 인 더 윈드 속 바이올린 독주를 울리고 싶었다. 농과대학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있겠나 싶었지만, 기적처럼 한 남학생이 출현. 그 조용한 남학생은 원곡의 바이올리니스트 로비 스타인하트처럼 곱슬머리 장발도 아니고, 중간 중간 코러스 보컬도 넣지 못했지만, 서울농대 샌드페블즈 10대 록 그룹사운드 공연에 바이올린 선율을 울렸다.

더스트 인 더 윈드. (https://youtu.be/TH2w6Oxx0kQ 참조)

I close my eyes, only for a moment, and the moment's gone / All my dreams pass before my eyes, a curiosity / Dust in the wind, all they are is dust in the wind

잠시 눈을 감는다, 그러면 그 순간은 사라지고 / 나의 모든 꿈들이 내 눈앞에서 지나간다, 호기심 속에 / 그것들은 모두 바람에 날리는 먼지, 바람속의 먼지일 뿐

무상 無常, 똑같은 것, 영원한 것은 없다고, 부처님 말씀이다.

제행무상 諸行無常, 모든 행함은 덧없다고. 전도자 알, 헛된 것들 중의 헛된 것이고, 헛된 것들 중의 헛된 것이니,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더스트 인 더 윈드'의 가사들이다.

Kansas의 기타리스트 케리 리브그렌은 1977년 손가락 끝으로 기타를 뜯는 핑거 피킹(finger picking) 주법을 연습하다가 이 곡을 만들었다. 아메리칸 원주민의 시구절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에서 영감을 받기도 했다.

김인종의 신이 부르는 노래 'Dust in the Wind' by Kansas

Same old song, just a drop of water in an endless sea / All we do crumbles to the ground though we refuse to see /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여전히 똑같은 옛노래, 끝없는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지듯 / 우리가 아무리 보지 않으려 해도, 우리 모두는 결국 땅위로 떨어지고 / 우리 모두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 바람속의 먼지일 뿐

'여전히 똑같은 옛노래'는 전도자의 '해 아래 새것이 없고...' '끝없는 바다에 물한방울'은 부처의 '如投水海中(여투수해중)'이라.

우습게 보이던 장발의 록커 케리 리브그렌은 종교의 경계를 넘나들며 운율을 짓고, 목이 곧은 고상한 시인들을 무색케 한다. 모두 바람에 날리는 먼지... 과연,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에 불과?

20세기 들어 각광 받은 물리학의 환원주의 학자들은 물질과 생명체가 결국 원자 혹은 그 이하로 쪼개지는 양자, 그리고 유전자와 염색체의 통제와 지시를 받으며 프로그램된 캐리어(carrier), 운반자, 숙주에 불과하다는 이론을 펼친다. 우리 숙주들은 유전자 지시대로 어느 만큼 살다가, 땅위에 누워 덧없이 썩어져 갈 육체이고, 양자와 유전자들만이 또 다른 물질과 생명체를 갈아타며 역사를 이어간단다. 과연?

이들 환원주의 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불가사의한 공식이 있다. 전체를 이루는 부분집합의 합이 전체에 못 미친다는 것. 전체는 그 부분집합의 합보다 크다. A curiosity? 신기하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조직화 원리'라고 부르는데, 우리 생명체는 각 개 유전자들의 집합(부분집합의 합) 이상의 그 무엇(전체)으로 존재한다. 유전자들의 각 속성을 능가하는 플러스 알파의 전체로서 움직여 간다.

'법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법을 만든다'(A Different Universe, Robert B Laughlin 1998 노벨 물리학상). 찢라지고 쪼개어진 유전자, 양자가 우주의 주체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생명체, 통합적인 물체가 주체이다. 한 생명체 안에서 똘똘 뭉친 유전자의 집합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전체로서의 한 생명체가 해 나가는 것이다. 전체를 통제하려던 유전자들이 당하는 '조직의 쓴 맛'.

이기적 유전자들이 생명체에게 가하려던 낭만적 허무주의는 신 God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땅의 흙(dust)들을 모아, 신 God은 숨(breath)을 불어 넣었다. 먼지의 전체집합이 먼지의 부분집합의 합보다 무언가 큰 이유이다. 신의 숨결...(계속) <아크로폴리스 타임즈>

동문들이 사는 이야기: 원미랑(미대 65) 넘치는 에너지와 눈부신 아름다움이 그 빛 속에

Stanford Hospital에서 현대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암을 연구 치료하는 목적으로 최첨단 의료 시설과 초현대식 4층 암센터를 건립하였다.

병원이지만 각종의 로비, 접수대벽, 복도에는 북가주지역의 중견작가 40여명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앙되는 2층까지 황하게 툴인 로비에 원미랑동문의 4 x 15 feet 크기의 불꽃로 강철망을 녹여 만든 작품이 원동문의 바람대로 환자, 가족, 방문객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위로를 받는다. 혹자는 병원이지만 미술전시관 같다고도 말한다.

Stanford Hospital 이사회에서 환자, 환자의 가족의 의견도 수렴하고 작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의뢰를 받고 제작에 착수한다. 대형 화폭이고 torch(불꽃)으로 작업하기에 San Francisco에 있는 작업실은 화재의 위험이 있어 자기집 차고에 천장을 뚫고 대형 도로래를 설치하여 오르락 내리락하며 8개월 간 작업을 했다.

이곳 중앙일보는 물론 San Jose Mercury 신문(7월 14일)에서도 원동문 위주로 기사가 소개됐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California Light" 5점의 원동문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원동문은 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Stanford 병원 작품 중에서 병원 lobby에 설치된 강철 망 스크린 설치 작품이 그 중 major 작품이라, 그걸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Installation 제목은 "California Light"입니다. 2) 이곳 California로 내려와 산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California의 풍성하고 넘치는 햇빛을 작품에 담고



싶었습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눈부신 아름다움이 그 빛에 항상 있습니다.

3) 제가 stainless steel mesh를 재료로 쓰는 주 요인은 물론 녹이 슬지 않는다는 것이나, 재료에 있는 반짝임 이랄까 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포개져 있는 스크린 속

line들을 보면, 이곳 California 햇빛이 그속에 잡혀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크고 작은 낮익은 giant petals 들이 공중에 유유히게 떠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여기서 제 작품 제목이 나왔습니다.

4) 형태는 꽃잎같고 나무 줄기 같으나 작업 과정은 Abstract 합니다. 즉 저는 꽃을 그리려는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마치 붓을 들은 듯, 불꽃으로 하나 둘 line만 태우는 과정에서, 그 뜻없는 line들이 겹치고 만나면서, 꽃모습도 되고 나무 모습도 되고 해초도 되고 그러는거지요. 동봉하는 statement에도 적었으나, torch를 들고, 용접용보호 안경을 끼고 천장에서 땅으로 내려있는 철망 앞에 서면, 안경때문에 다 어둡고, 손에 들고 있는 불꽃만 밝습니다. 마치 먹물로 붓글씨를 쓰듯, 마음을 비우고 한줄한줄 태우기 시작합니다. 하다보면 제가 아니라, 불꽃이 제손을 움직이는데 같습니다. 그런 선들이 모이고 겹쳐지고 해가며 형태가 생깁니다. 전 screen에 만들어진 이런 simple한 형태가, 그제 꽃이던 나무 가지던 자유롭게 떠 있는게 좋습니다. 숨 쉴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San Francisco에서 열리는 art fair에도 작품을 전시해왔고, 꾸준히 미술관 작품 전시도 하고, 그동안 Kaiser나, Palo Alto Medical Foundation 등 여러 병원과 호텔 등에 commission 작품들을 해왔으나, 이번 같이 새로 신설되고 있는 건물에 처음부터 시작되어 그 장소에 맞는 site specific한 작품들을 한 건 처음이라, 제겐 의미가 많습니다. -원미랑-

*원미랑(Morang Wonnw) 동문은 경기여고를 졸업 1965년 미대 수석입학 69년 수석졸업 대학원 석사 Ph.D., Esthetics, Sorbonne(University de Paris 1) 귀국 서울대 미대에서 잠시 교편을 잡다가 도미 San Francisco 지역, 서울등지에서 개인전 20여차례 전시하며 새로운 화풍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홍경삼(문 61) 북가주 동문회 이사장>

동문칼럼 여성이여 노벨상에 도전하라 - 2009년 노벨상 수상자, 블랙번과 그라이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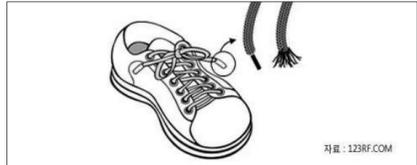
김선영(문리대 78)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여성과학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80년대까지 생명과학계의 주요 금금종 중 하나는 '텔로미어'라고 불리는 염색체 DNA의 최종 말단부위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가에 관한 것이었다.

염색체 DNA는 2개 가닥의 나선 형태이기 때문에 운동화의 끈과 비교하자면, 그 끝부분이 잘 마무리되어 있어야 끈이 풀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DNA도 최종 말단부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블랙번은 27세인 1975년, 예일대 교수가 된 남편을 따라 같은 대학 조셉 갈 교수의 실험실에서 박사후과정(포



자료 : 123RF.COM

동문칼럼 '요령껏'사는 사회·'원칙'만큼은 지키는 사회



이상봉 (문리대 65)

요령껏,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잘살게 되어 있고, 그런 류(類)의 사람들이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다보니... 그런 사람들이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요 또한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은근 슬쩍, 요령껏, 적당히" 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원리 원칙'이라는 것을, 적당히 요령껏 은근슬쩍 무시하고 속이면서, 돈벌고 출세를 하여... 자기만 잘먹고 잘살아야 된다!' 라는 의미다. 그렇지 않은가? 내 말이 틀렸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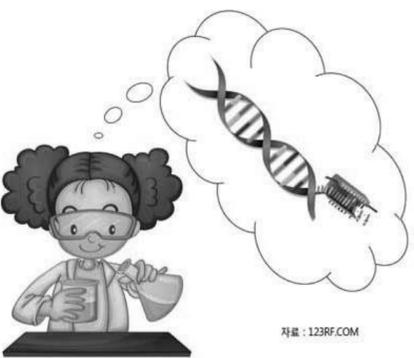
원리 원칙이라는 것이 사회의 기초로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서는 '원칙을, 적당히 요령껏 은근슬쩍 무시하고 속이면서, 돈벌고 출세를 하여... 자기만 잘먹고 잘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나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기에... 예상당초에 그런 말은 생겨날 수조차도 없는 것이다.

이야기 하나: 미국의 수퍼 마케트에 가보면, 한쪽 코너에 '술 판매' 하는 곳이 있는 주(州)가 있다. 일요일에는 술을 오전중에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州에서 보게되는

한국에서 여성이 노벨상을 받는다면, 이 공계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월등히 많은 숫자의 여학생이 입학하는 생명과학 전공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2009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캐롤 그라이더의 연구 역정은 우리나라

그라이더는 학교 성적은 좋았으나 난독증(難讀症)에 시달렸다. 우리나라의 수능준에 해당하는 SAT(대학 입학)과 GRE(대학원 입학) 성적은 매우 낮았다. 많은 대학에서 입학을 거절당했으나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과 칼텍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버클리를 선택했다. 1984년 블랙번의 연구실에 그라이더가 대학원생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4년에 걸쳐 텔로미어에 붙어있는 단백질과 RNA의 존재를 밝히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큰 그림이 밝혀진 1988년, 블랙번은 40세, 그라이더는 27세였다. 수년 후 텔로미어는 암과 노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졌다.

블랙번과 그라이더는 30세 전후에 결혼하여 실험에 몰두하면서도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렸다. 수상 후 블랙번은 여성 과학도들에게 과학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다고 설교했다. 두 여성의 노벨상 수상에는 당



자료 : 123RF.COM

대의 중요한 생물학적 이슈에 대해 뛰어난 테크닉을 가지고 끈기와 열정으로 실험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에는 운명적 조력자들이 있었으니 여성과학자를 열성적으로 격려하고 원생동물에서 텔로미어 연구를 시작하게 해준 블랙번의 은사 갈 교수, 대학원생이던 그라이더의 실험결과를 그녀의 업적으로 인정해준 지도교수 블랙번 자신, 그리고 두 여성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남편들이다.

지난 23년간 서울대에서 많은 여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실험과학자로 성공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상당수는 스스로 평범한 여자의 길을 택했고, 또 다른 이들은 출산과 육아, 남편 우선의 사회문화로 인한 과다한 가사노동 때문에 경쟁력을 잃었다. 블랙번과 그라이더는 노벨상에 도전하는 여성과학도가 연구와 결혼 시 선택하고 고려야할 중요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중앙일보>

장면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수퍼 마케트에 들렀던 사람들이 술을 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의 시각이 오전 11시 55분이나 11시 58분이었다고 해도, 술 판매 코너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엄연히 종업원이 있는 데도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술 판매 코너 앞에서 고객이 기웃거리면, 종업원이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가리키면서, '아직 12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시계가 12시를 넘어가야만 술을 팔기 시작한다. 어떤 때에는 - 특히 명절 때에는 - 술을 사러 온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줄을 길다랗게 서서 기다리고 있어도, 정해진 시간 前에 술을 파는 예가 없다.



결론을 말하면 "그까짓 것... 겨우 2~3 분 정도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될 것을, 저렇게 딱 막혀 가지고서는... 저 병신 언제 돈을 버나? 쫓 쫓" 라는, 한국식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야기 둘: 이번에는 장난 같은 이야기를 한가지 해볼까? 미국의 고등학교 이야기를 해보아야 되겠다! 미성년자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있기도 하지만... 어차피, 고등학생 중에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우습다. 숨어서 몰래 담배를 피워야 할텐데... 그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는 길거리로 나와서 - 그야말로 대로상(大路)으로 나와서 - 담배를 피우고들 있다! 다시 말하면... 학교내에 숨어서 선생

님 모르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경계선 밖으로 나와, 대로상(上)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학교 내(內)에서는 금연(禁煙)'으로 되어 있기에, 학교 구역 內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학교 內에서의 금연이라는 말은, 학교의 건물 內에서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서도, 학교 잔디밭에서도, 학교 나무 그늘 밑에서도 금연(禁煙)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곳이 학교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 미국의 학교에는 담장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학교와 외부와의 경계는 결국 도로가 되는 것이고, 학교 구역을 벗어나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보니, 결국은 대로상(上)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지나가는 모든 행인의 눈에 띄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선생님들이 보아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곳은 엄연히 학교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미성년자의 흡연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 법집행관에게 있지만...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법집행을 할만한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결국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코메디 같아 보이기도 하고, 속 들여다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들의 행위 속에는, 한국식으로 "은근 슬쩍, 요령껏, 적당히" 숨어서 - 선생님에게 들리지 않고서 - 몰래 담배를 피우는 그런 거짓과 요령; 즉 겉으로만 들리지 않도록 교내의 구석진 곳이나 변소 같은 곳에 숨어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그런 얌은 속임수는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차피 그 끊을 수 없는 담배를 피우기는 하지만 '교내 흡연 금지'라는 그 원칙 만큼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동문칼럼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정근 (사대 60)

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이지만 학자란 역시 유통성이 모자라는가 보다.

‘아리랑’의 말뿌리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도 정설이 없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그것들이 대부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신라 시조인 박혁거세의 아내 이름 ‘알령’에서 나왔다는 인명설, 아리령이라는 고개 이름 그리고 그것과 얽힌 전설에서 나왔다는 양주동 박사의 지명설, 고려 가요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처럼 노래에 넣는 무의미의 여음(餘音)이라는 설, 중국 말 婀阿女郎 是女郎에서 나왔다는 중국 발원설, 몽골어 설, 길알지 설화처럼



‘알’에서 나왔다는 주장, 아리랑/스리랑은 긴 고개를 뜻한다는 설, ‘가슴이 아리다, 쓰리다.’에서 나왔다는 설....정말 각종 의견들이 설설설설 들끓는 수준이다. 게다가 아리랑을 我理郎이라고 한문글자로 써서 ‘자기를 아는 즐거움’을 뜻한다는 철학적 해석도 등장했다. (서정범 저 ‘국어어원사전,’ 위키피디아 등 참조).

그래도 추천할만한 해석이 하나 있다. ‘아리랑’의 아리는 ‘아리따다’와 아리답다의 ‘아리’가 그 뿌리이고 ‘랑’은 신랑과 여랑(女郎)의 용례에서 보듯이 젊은 남녀 모두를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아

리랑 고개의 ‘아리랑’은 길고 험악한 고개라는 뜻을 가졌다. 노래말이 반드시 단일 의미로만 해석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애매모호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될 때 더 운치가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첫 절은 ‘고운 남, 고운 남, 고운 남이, 높고 긴 고개를 넘어 간다’고 현대말로 푸는 것이 좋겠다.

한국의 대표적 민요는 대개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 곧 연애시라는 게 정설이다. 그것도 억압된 성적 욕망을 분출시키려는 제법 야한 노래들이다. ‘도라지’는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고 ‘대바구니’는 여성의 그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

사했고 그로텐휘스(Grotenhuis)가 편곡했다. 또,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아리랑 고개에서 우리 주님 만났네”로 가사를 쓴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나를 위하여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김정복 목사 작사)도 있다.

예수쟁이들이 별짓 다한다는 비판이 있겠지만 그것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아리랑을 처음으로 오선지 악보에 기록한 사람이 바로 미국 선교사 호머 훌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였다.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잘 알고,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는 인물이다.

아무튼 마지막 절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가 코리안들의 토라진 심정을 담은 공감대가 되기는 한다. 한국인 특히 한국 여인들의 가슴병인 ‘한’을 노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사의 의미는 좀 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뿌리치고 떠나가는 연인이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고 저주하는 것보다는 그의 미래 행운을 비는 것이 더 건실한 점서 아닌가. 그래서 진달래꽃 한 아름 뿌려 보내겠다는 김소월의 시가 훨씬 돋보인다.

그런 점에서 그 아리랑 끝부분을 ‘십리도 못 가서 뒤돌아 보리’로 고치면 어떨까. 이별의 아픔이 더 좋은 희망을 생산하는 그런 노래가 되리라.

(한국일보 미주판에 최근 게재된 것을 수정 보완했음. 글쓴이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국어교육 전공. 은퇴 목사이며 ‘코리안의 노래’ 작사자)

뇌하기 시작했다.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확실한 정의를 가르쳐서 의식으로 국민을 뭉치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정부의 프로파간다와 다른 말을 하면 <빨갱이>요 <반동분자>로 매도했다. 북에서는 인민재판에 회부되었고, 남에서는 칼 막스 공부의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학생의 집에 그런 불온서적(?)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체포해서 고문했다.

반면 미국은 어떻게 했는가? 전쟁 후 매서츄셋주 케임브리지에 젊은 지성인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였다. 미국이 유럽의 종교적 독재를 피해 이민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지라 유럽의 고식적 철학(Philosophy)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사상을 만들고자 했다. 그 결과 실용주의(Pragmatism)철학이 탄생했다. 하버드대학도 MIT의 Charles Elliott를 총장으로 영입해 신학중심 커리큘럼에서 과감히 탈피해 실용적 과학분야로 목표를 바꾸었다. 바로 이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서부진출을 장려하고,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하며 미 국민을 단결시키고 강대국으로의 근육을 키웠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남북한의 속 없는

빈껍데기 Ideology는 순전히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위선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반공의 나라에서 병역을 필하지 않으면 북한을 돕는 이적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병역미필자들이 고위직에 앉아 큰 소리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현대전에서 병역을 완수하지 못할 정도의 허약한 몸이라면 정부의 고위직 근무는 어찌 수행할 것인가? 또한 방위산업의 군 장성들의 비리는 어떤가? 언론에서 태풍처럼 떠돌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그들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전혀 소식이 없다. 얼마 후 같은 비리가 재생산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전쟁시 미국 장군의 자식들이142명이나 참전했고 그 중 35명이 희생(사망 혹은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전쟁 후 지성인들이 Pragmatism이라는 Idea를 창출, 정치인들이 이를 정책에 반영해 큰 나라로 발전했고, 한국은 정치인들이 기득권 세력을 위한 Ideology 헛구호를 만들어 국민을 세뇌해 왔다. 남북전쟁 후 미국은 이해와 관용으로 융성했고, 우리는 미움만 키워 가고 있으니 우리의 끝은 어디일까? 이제부터라도 알맹이 없는 Ideology를 탈피하고 관용과 이해가 밑바탕이 된 한글 창조정신으로 남과 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민성기 동문은 설파한다.

동문글[시·수필] 첫사랑의 추억, 봄바람 타고



김수영 (사대 57)

봄바람 타고 우후죽순처럼 꽃소식이 한창이다. 인적이 드문 시골 오솔길에 핀 이를 없는 들꽃이 비록 보잘 것 없이 초라해 보여도 나는 가만히 앉아 들여다본다. 꽃잎도 쓰다듬어 보고 이파리도 어루만져 보며 꽃잎이 숨 쉬며 봄을 맞이하는 비찬 감격의 소리도 들어본다. 그 속에 우주의 합창이 들려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빙빙 돌며 춤을 추기도 한다.

꽃 한 송이 한 송이도 좋아하지만, 무리를 이룬 꽃들도 무척 좋아한다. 온 산야를 뒤덮은 유채꽃, 매화꽃, 온 거리를 뒤덮은 벚꽃을 보노라면 활황한 무아지경으로 빠져 무릉도원에 온 듯 작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유채 꽃은 이곳 캘리포니아

에 박수갈채를 받는 것처럼 몽롱한 환상 속에 아득한 옛날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고 있었다.

추억을 더듬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첫사랑의 기억이 안개꽃처럼 피어올랐다. 대학 학창 시절 연인과 함께 창경궁에 놀러 갔다가 만발한 벚꽃을 보고 심취하여 눈물을 흘렸다. 감수성이 남달리 예민했던 내가 눈물을 글썽이자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해했던 그녀는 이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내 곁을 떠났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 꼭 한 번만 만나 달라는 청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나. 냉정하게 매몰차던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면 정말 절절한 철부지 같은 행동이었다. 그렇게도 간절하게 한 번만 만나달라는 요청을 뿌리치고 그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나. 돌이킬 수 없는 과거지사가 되었는데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오고 후회가 막 금하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세상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번만 만나달라는 소원을 왜 들어주지 못했을까. 군대에 잘 다녀오라고 작별인사 한마디는 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나를 못 잊고 오매불망하던 그는 군대에 입대

뒤덮은 벚꽃을 보노라면
황홀한 무아지경으로 빠져 무릉도원에 온 듯...

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매화꽃과 벚꽃은 보기 드물다. 한그루, 두 그루는 볼 수 있을지언정 무리를 이룬 장관을 아직 보지 못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친구 둘이 찾아와서 동부 워싱턴 D.C에 벚꽃구경을 보러 가자고 찾아왔다. 그러지 않아도 미국에 수십 년 살아도 벚꽃구경을 못해본 터라 얼싸 좋다고 손뼉 치며 가자고 했다. 한국에서는 벚꽃이 지천으로 깔렸는데 왜 이곳까지 와서 벚꽃구경이냐고 핀잔을 주었더니 동부관광 코스에 벚꽃축제가 금상첨화(錦上添花)로 끼어 있다고 했다. 나도 친구들과 함께하여 미국 동부관광을 하기로 했다. 나야 가라 폭포 등 여러 관광지들 둘러보고 워싱턴 D.C에 있는 벚꽃축제에 참석하여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눈을 떼지 못했다.

흐드러지게 만발한 벚꽃을 보며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바람에 흩날리며 나무끝듯 떨어지는 꽃잎들을 보며 꽃 비가 뿌려지듯 그 속을 거닐며 어린애처럼 환호성을 질렀다. 용단을 깔아놓은 듯 길에 깔린 꽃잎을 밟고 걸어도 있었다. 마치 레드 카펫 위에 걸아가는 배우가 현란한 불빛 속

하여 일선지구 근무 중 지뢰를 밟고 장렬하게 산화하고 말았던 것이다. 나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에 매번 시달렸지만, 하나님 믿고 용서를 구하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랑의 흔적은 내 가슴에 지워지지 않고 풍경처럼 매달려 있음을 어찌하랴.

그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벚꽃이 만발했던 창경궁을 잊을 수가 없다. 사람은 죽고 없어도 벚꽃은 매년 피고 지며 지난날의 아름답고 슬펐던 추억을 상기시키며 울봄에도 여전히 벚꽃은 피고 있으리라. 서울대학교 학생이 아니라서 끝까지 거절했던 못난 자존심! 그 자존심을 그의 무덤과 함께 묻어 버렸지만, 그녀는 아는 듯 모르는 듯 무덤 속에 잠들어 있고 무덤 위에는 할미꽃이 여전히 피고 지리라.

벚꽃은 추운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온 힘을 다하여 인간을 기쁘게 해 주려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며 활짝 피어 가슴을 다 들어내고 삼라만상을 끌어안고 호탕하게 웃으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데 ... 나는 무엇인가.

< 동문시 >

첫사랑
김수영 *Translated by Soo Yong Kim

불현듯 못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꽃샘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며 피는 꽃 속에
명숙 깊이 묻힌
추억의 씨앗이 보이네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가끔은 마음을 울리는
은은한 종소리

보일듯 말듯 고운 미소
밀물처럼 밀려오다
샘물처럼 스프르
왔다가 가네요

추억은 무지개처럼
고운 꿈인 것일...
모래 위에 새긴 발자국처럼
파도에 쓸려 지워지는
미련인 것일...

우리네 인생도
한바탕 일장춘몽인데
사슴처럼 긴 꼬가지를 뺏고
가는 세월 아쉬워
추억을 노래하는
아리따운 양귀비꽃처럼...

어차피 피고 마는 꽃인 것을
석양의 노을인 것일...
눈물이 빗방울 되어
가슴을 흥건히 적시는
보슬비인 것일.....

First Love Affair

All of a sudden,
Unforgettable sweet memories of you
Spring up in my mind
from time to time,

Seeds of remembrance buried deep
Under the ground are visible,
Seeing a blooming flower
swinging in the spring breeze;

Like the rain drops
caressing the fragile window pane,
Like the bell tolling faintly touching
my pathetic heart somehow,
Beaming visage is barely visible
and vanishes like ebb tide out of sight,
Upon flowing;

Reminiscence is a refreshing dream
like beautiful rainbow,
But it seems to be lingering regret
swept away by the waves
Like the footprint in the sand,
Our life is too short
to regret like spring flowers,

Even spellbound poppy flower
singing past love songs,
Like the deer with the long neck
will wither before long,
Like glowing sunset in the evening,
Like a drizzle soaking in the bosom
with raindrops of tears.



★ 띄어쓰기 퀴즈 응모: 띄어쓰기 퀴즈입니다. 다음 문장을 띄어쓰기에 맞게 쓴 후 점수를 올려서 보내주세요. 지난번 퀴즈에 어느 동문처럼, 답을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선착순 10명의 정답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전공/학년,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십시오. (보내실 곳: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 이메일: news@snuua.org)

이름:	단과대, 입학년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문제 1. 띄어쓰기에맞게쓰후이달말까지보내주세요.	답 1:	
문제 2. 동문님정답은하루만에도착했습니다.	답 2:	

동문글[공트]

딸구와 공여사 〈후편〉



이석호 (공대 66)

화가 난 나는 파티가 끝난 후 딸구를 찾아가 따졌더니 막상 공여사가 자기 앞에 와서 섰을때 눈이 마주칠려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명과 현기증이 나서 도저히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일은 다시 틀어져 버렸는데 그 후로 딸구는 더 이상 공여사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고, 나도 다시 문기가 미안해 공여사 께는 우리 둘 사이에서 사라졌다.

그 후 이십여년이 흘러 우리 둘다 오십을 넘기게 되었다. 딸구는 여전히 대학에서 엔디맨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나는 공부를 마치고 어느 회사에 회계사로 취직이 되어 잘 다니면서 종종 만나 같이 술도마시고 등산도 다니며 재밌게 인생을 즐겼다. 안된건 나는 마누라가 있는데 딸구는 그저도 홀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딸구가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사다리가 쓰러지는 바람에 콩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이 머리는 다치지 않았지만 척추가 두군데나 부러져서 하반신을 못쓰게 되는 바람에 남은 여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게된 딸구는 일주일애 서너번씩 꼭 찾아주는 내가 유일한 의지가 되고 말았다. 내가 바쁜날은 아내를 대신 보내 부엌일이나 집안청소 같은 것을 손봐주게 했다.

그 후 나도 딸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환갑을 넘기게 되었다. 환갑을 넘기면서 딸구는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한 아픔이 되살아 나는지 자주 우울해 하면서 곧잘 아무말 없이 휠체어에 앉은채 창밖만 쳐다보곤 했다. 그러면서 건강이 부쩍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복수와 각혈의 증상이 보여 급히 입원을 시키고 진단을 받게 했는데, 결국 말기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너무나 늦게 발견된데다 간까지 심하게 훼손되어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사후정도 남았으니 큰일에 대비하라는 의사의 권유에 딸구의 법적 대리인을 위임받은 내가 모든걸 처리해야했다.

요양원에 들어간 후 며칠 지나 나는 딸구에게서 신상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듣게되었다. “경수야, 난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중도 몰라야” “...? 아니, 그럼 어머니가 널 어떻게 낳았어?” “울엄니가 하도 행실이 부잡해 각오, 나 뻘때 남편이

의심을 해각오 엄니를 내 쫓아 부렸시아. 그래서 날 낳고 도 이름도 못 짓고 호적을 못 올렸시아. 공계 이철구란 이름도 호적도 다 내것이 아니어” “.....”

딸구의 이야기는 대략 이러했다. 딸구 어머니가 남편에게서 쫓겨난후 그 옆동네로 가서 그 동네 어느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그집에 살았었는데, 그 옆집에 “이씨아재” 라는 홀아비 하나가 딸구만한 아들을 하나 데리고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육이오가 터지고 인민군이 후퇴를 할때에 그 동네가 격전지가 되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적잖이 생겼었는데 그중 일부는 일제때 일본사람들이 근처 산에다가 파 놓았었던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굴이 무너지면서 변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후에 마을 사람들이 무너진 흙더미를 헤치고 산사람 몇을 찾아내기도 했고 죽은 사람의 시신도 끌어냈었지만 워낙 굴이 깊어서 대어섯구는 아직도 그곳에 묻힌채 있

는데 그 중에 이씨 아재 부자가 끼어있다는 것이었다. 딸구와 딸구 어머니는 다행히 굴 입구 가까이 있었기에 굴이 무너질때 얼른 뛰어나와 변을 면했는데, 후에 딸구의 사정을 아는 면사무소 직원이 희생자 호적 정리를 하면서 딸구를 그 이씨아재라는 사람의 아들로 슬쩍 넣어준 것이라 했다. 말하자면 무작적인 딸구는 그 이씨아재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셈이 되는 것이었다.

말을 마친 딸구의 그 땀샘진 입술이 싹록거리면서 눈물 같은 것이 흐르는지 딸구는 그 빈대 향문만한 눈을 찡끔거렸다. 이야기를 들은 나는 허공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쉴 수 밖에 없었다.

“나 죽고당 화장을 해서 남골당엔 안치해 도라. 이름이나 생년월일 걸은건 쓰들 말고 그냥 죽은 날자만 써 도라.”

죽는것까지 남의 이름으로 죽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수 있었기에 해달란테로 해주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운명하기 이틀쯤 전에 딸구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하는 것이었다. 길이가 육피트는 된직한 길다란 원통형 컨테이너에 돌돌 말아서 꼭 봉해진 그림 하나를 주면서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공여사에게 꼭 존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삼십년 동안 입에 안올리던 “공여사”란



삽화: 엄종렬(미대 61)

단어가 딸구 입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딸구는 다음날 저녁 혼수상태에 들어가더니 하룻밤을 더 버티고는 새벽에 마지막 숨을 내 쉬었다. 밖에

도대체 神은 무엇때문에
이토록 극심한 고통을 줘야 했을까?

서는 병실 창문 우리를 타고 나와 아내가 흘리는 눈물만큼이나 굵은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딸구의 유골을 남골당에 모신 후 나는 공여사를 찾아가 적당히 둘러대면서 그 그림을 전했다. 그리고 지금 딸구가 살던 아파트에 찾아가 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딸구의 스켓취복을 들여다 보다가 옛생각에 잠겨있는 것이다.

두꺼운 스켓취복을 꼭 채우리만큼 페이지마다 그려진 그림들의 주제는 하나같이 여인들이었는데 모두가 각양각색의 모습과 표정들을 하고 있었다. 여왕, 공주, 천사, 성모 마리아, 마리아 막달라, 관세음 보살, 매튜사나 비너스 같은 신화의 주인공들, 썬데렐라, 성냥팔이 소녀, 무뢰, 담배를 피우며 방거리에 서있는 창녀, 미친여자 등등... 그런데 그 여인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공여사의 모

습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진 것이었다. 그것은 코브라같은 형상을 한 괴물과 완전 나체로 한테 엉켜 부둥켜 안고 회열에 찬 표정을 하고있는 공여사의 모습을 그린 것이었는데,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허를 내밀고 있는 그 코브라의 부풀은 목의 무늬가 딸구의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공여사는 딸구에게 이세상의 모든 것이었으며, 딸구는 공여사에 대한 지독한 상사병으로 연일 스스로를 태우다가 끝내 몸까지 망가져 죽게된 것일게다.

같이 유품을 정리하던 아내가 이 그림들을 한장 한장 보다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얼굴을 두손으로 가리고는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는 기구했던 딸구의 생애에 대한 연민이라기 보다는 숭배하는 예술가의 작품앞에서 감동하여 내지르는 탄성이 더 가까웠다.

올다말고 아내는 두사람의 일을 다시한번 시도를 해보지 않았던 나를 탓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딸구와 공여사간에 내가 적극적으로 중매를 썼다 할지라도 성사가 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설사 성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분노와 백작 미망인의 결합같은 심한 비대칭의 부부 관계가 풍파없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있었을까에 대해 나는 여전히 물음표를 붙이고 싶다고, 나는 변명아닌 변명을 했다.

딸구는 공여사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공여사를 알게 된것이 딸구의 불행에 불을 붙인 것이다. 만에 하나 공여사가 딸구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해도 주변의 질투에 찬 만류를 공여사가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돌아서야 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그야말로 상상하기도 끔찍한 불상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도대체 神은 무엇때문에 날 때부터 어느 한가지 남의 부러움이나 시샘을 살만한 것이라곤 없이, 행복이란 것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딸구에게 무엇이 그리도 시새웠기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만사에 재를 뿌리면서 이토록이나 극심한 고통을 줘야 했을까?

後記

그 이듬해에 공여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급히 찾아간 나에게 공여사의 딸이 하는 말이 몇달전부터 어머니가 자주 어지럽다고 하시면서 시름 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어제 아침 늦도록 기력이 없어 들어가 보니 돌아가셨더라는 것이었다.

나는 공여사의 딸에게 그간의 일들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고는 딸구가 남긴 그 스켓취복을 전해주었다. 그러자 같이 넣어드릴 것이라고 하면서, 공여사의 딸이 작은 방의 한쪽 벽을 다 덮을 만큼 아주 커다

란 수채화를 하나 보여주었다. 첫눈에 딸구가 운명하기 얼마전에 공여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내게 맡겼었던 그 그림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그림에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케루비노로 분장한 딸구가 의자에 앉아있는 백작부인 공여사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부인의 손에 입을 맞추는 장면의 그림과 노래 “Voi che sapete”의 가사가 써여 있었다. 공여사 모녀는 그때까지도 그 그림을 내가 그린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공여사의 딸이 그자리에서 아주 대담한 제의를 했다. 이 그림들을 모두 두개씩 사본을 떠서 사본 한부는 어머니의 무덤에 같이 넣어드리고 다른 한부를 가지고 전 시회를 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원본은 자기가 영구히 보관하겠다는 것이었다.(完)

동문글[여행기]

산티아고 순례길 낙수 <7>



이강홍 (상대 60)

위를 끝내고 돌아오니 육중한 체격의 독일여성이 바로 위 침대에 짐을 풀다 살짝 웃음으로 인사한다. 암사할까 두렵구나. 밖에서 저녁식사를 끝내고 들어오니 이미 이층의 여인이 누워있는데 그 চে움으로 침대가 너무 처져 아래칸으로 찾아 들어가 짐을 풀기 불편하네. 이것도 여난이라 말 할 수 있겠지? 어제의 파라돌궁전의 밤과 이 밤이 너무도 극명하게 대조가 되네.

아침에 그녀와 같은 식탁에 앉게 되어, 스프와 빵뿐인 알베르게식사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 자기자 현역 배구선수란다. “어제 밤 불쾌했죠?”하고 웃는 모습이 꽤 매력스럽다. 보통은 여자들 스스로 한 쪽 구역의 침대를 차지하는데 어제는 구획을 정할 수도 없게 복잡하였다. 뒤늦게 식탁에 합류한 두 남자와 흥분된 어즈의 독어로 한동안 대화가 이어지더니 한사람이 내게 관심을 돌리며, 그녀가 국가대표선수 - National Team - 라 하네. 영광스러운 암사를 할 뻔 했구나!

어둑한 아침에 자옥한 안개속의 가로등 불빛이 신비하고 묘한 느낌을 일으킨다. 걷는 길마저 돌을 깔 길이라 마치 중세의 어느 순간에 와있는 느낌이 들더라.

또 우리세대의 먼 옛날 보았던 영화 ‘애수’가 떠오른다. 여주인공이 짙은 안개속의 다리를 초점을 잃은 눈으로 걸어가 다 비운으로 끝나던 그 모습이 연상되네. 사치스런 생각을 떨고 오늘 일정이나 고민하자.

오늘은 야고보님의 무덤으로 가는 길의 가장 높은 봉(Puerta Irago) 1505m를 넘어야한다. 얼었던 대지가 봄의 화신을 면사포로 감싸 맞이하려나, 보통의 안개가 아니다. 스틱들의 급속성이 아니면 앞사람을 쫓을 수 없네. 랜턴을 필꼭에 감아 뒤에 오는 사람들이나마 편하게 따라오게끔 선행을 배풀었지. 4시간여의 오르막 길을 거의 탈진상태로 꼭지점에 다다른니, 기대하던 철십자가와 그 멋진 ‘돈키

호테’ 밑 ‘산초’의 철 조각 작품이 더욱 짙은 안개속에서 희미한 영상만을 보여줘 몹시 아쉽더군. 짙은 무리가 모닥불을 피워서 자연스레 불 주위에 등글게 에워싸 점심을 먹는데, 그 수가 40명이 넘더라. 어렵해보니 남녀가 반반 정도 되어 무슨 여성단체가 왔는가 짐작했는데 그게 아니다군. 생각이 바뀌면서 이 고달픈 길을 가는 여성들에 대한 존경심과 역시 여성이 신앙에 빠르게 몰입고 젓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기독교를 처음 공인한 로마황제도, 그 왕비가 먼저 받아들였다 하지? 여기 고행길에도 처처에 세운 중세의 멋진 다리나 병원이름은 왕비나 여성들의 공덕을 기리는 것들이 많더라.

고개를 오를 때는 내려갈 때의 희망이 솟는데 여기 순례길은 언제나 실망을 안겨준다. 밭아 많은 돌가루가 하산길을 몹시 미끄럽게 만들고, 더욱 이 곳 높은 봉우리들이 몇 억겁 전에 바다의 백이 용기된 층층의 얇은 흑색 판바위로 형성되었다가 유구한 풍상에 조각으로 흩어져 걷는 길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상체는 스틱에 의존하고 모로 걸어서 내려오는 길이 너무 긴장되고, 발바닥엔 평소 훈련이 안된 방향으로 체중이 가해지니 영락없이 물집이 생기더군.



인간은 지혜롭다. 그동안 보아온 모든 지붕색은 오렌지와 주황색 뿐이더니 이 고개를 넘자 판이하게 바뀌었네. 모든 지붕이 흑회색의 슬레이트로 덮여있다. 자연을 참 잘도 이용한다. 해발 600여미터의 저지대에 다르니 좌우로 즐비한 나무에 흰 핀새 꽃들이 안개속에서도 유난히 희다. 아... 봄이 여기 숨어있었구나, 봄이! 봄은 서쪽부터 오는구나. 이래서 피레네산맥 이 쪽과 저 쪽의 진리가 다르다 했나?

속소에 다르니 너나없이 소금에 절인 배추짚이다. 피곤하여 침대에 축축 늘어져있다. 웃음도 말소리도 없다.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을 뒤집어쓰고 피로를 푸는데 까닭없이 눈물이 주룩 흘러내린다. 내 고행에 대한 나의 동정인가? 마음이 약해진 탓일까? 아니면 순수해졌나? 감동도 슬픔도 아닌 눈물이 샤워물과 함께 흘러내리네. 먼 옛날 해초스님도 고행의 구도길에 눈물을 뿌렸을까?

이제 어려운 고비는 많이 넘겼는지 싶은 여유와 어서 끝내려는 조바심을 동시에 느끼면서, 이 험난한 길에서 나폴레옹이 지녔던 최후병기 ‘희망’을 공감하며 밤을 맞이했지요. <계속>

동문글[여행기]

기적을 이룬 싱가포르 <2>



김명자 (문리 62)

바 없었다. 한국에 3,000여개의 섬들이 있고, 필리핀에는 7,000개의 섬들이 있다는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17,500여개의 섬이 있고 60퍼센트 정도는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가지 이상하게 생각된 것은 남미와는 달리 크루즈를 하면서 반도를 항해하는 동안 새 한 마리, 고래나 물고기의 흔적조차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는 자카르타(Jakarta)에서 국립공원으로 사파리(safari)를 갔는데, 하루에 두 서너 번의 소나기가 예고도 없이 왔고 신통한 것은 한 시간쯤 후에는 맑은 하늘과 해가 보이는 것이었다.

차를 타고 국립공원으로 들어가 사자, 코끼리, 기린 등의 동물들을 볼 수 있었고, 맹수들이 사는 곳을 벗어나서 크고 견고한 문을 지나 옆의 밀림으로 들어가니 얼룩말, 사슴들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잡혀 먹힐 염려가 없으니 다행일까? 사자들은 사냥을 못해도 굶어 죽을 염려는 없으니 행복할까? 또는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못찾고 일생을 자유를 잃고 갇혀 살고 있으니 불행하다고 해야 할는지! 등의 모든 질문들을 스스로 물어보기도 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고 사람마다 다르겠지.

사파리에 못지 않게 흥미가 있었던 것은 열대식물원(Borgor Botanic Garden)의 식물상이었는데, 우리가 늘 쓰고 있는 향료들, 코코아(Cocoa) 나무, 바닐라(Vanila) 열매, 날 맥그(Nut Meg) 등이 있었고, 35 종류가 넘는 대나무(Bamboo)들은 50-60피트의 높이에다 나무 하나 하나의 지름이 10cm이상이 될만한데 한 곳에 10-20그루씩 몰려 있었고, 260종이 넘는 야자수(Palm)들은 우리가 사는 온대 지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관이었다.

아이들에게 이메일을 하기 위해 75분에 \$100을 주고 인터넷 시간을 샀고 서너줄의 편지를 아들과 딸에게 보냈을 뿐인데, 다음 날 컴퓨터에 앉자마자 시간이 다 소모된 것을 알았고 우리는 상당히 화가 나서 프린세스에 대고 불만을 나타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로그아웃(Log Out) 하지 않은 남편의 실수였고,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남편을 따라 다니면서 참견해야 된다고 나 자신에게 일렀다.

공룡들은 한달에 한번씩 먹고 배가 고프면 물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물소들을 물던 2-3일 후에 온 몸에 독이 퍼져 물소들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6마일 밖에서도 피 냄새를 맡은 공룡들이 다 몰려들어 소 한마리를 거뜬히 먹어 친다. 옛날에는 닭을 먹고있던 원주민들의 집은 2-3미터의 땅위에 말뚝을 박고 짓는 것도 그들의 침범을 막기위한 것이라는 짐작도 갔다. 코모도는 과장해서 전전이 되었고 이 섬에 단것은 불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인도네시아는 모슬렘(Moslem)국가로 세계에서 회교도인의 수가 가장 많고 (88%) 거의가 수니(Sunni)인데, 이들은 착하고 양심해 보였고 가끔 보는 회교도인들의 과격한 성격같은 것은 상상하기 <2 of 3, 계속>

도 힘들었다. 한가지 다른 것은 땀샘도 되어 보이는 여자 아이들도 머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다른 회교국들과는 달리 종교적인 분쟁은 별로 없는 것 같았다 .

발리(Bali, Bena)에는 힌두(Hinduism)교도가 성행해서(90%) 집집마다 작은 사찰이 있었고, 끼니때가 되면 작은 그릇이나 바나나잎에 쫄임 하나, 밥 한 숟가락, 멸치같은 작은 생선 한 마리, 과자 같은 것을 담아서 여기저기 가져다 놓고, 개, 고양이가 먹거나 사람이 밟아서 항상 길거리는 지저분했다. 오랜 세월을 내려오는 동안 힌두교는 불교와 섞여 있어서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다. 많은 절들이 있어 웬만한 곳에는 큰 형상의 부처(Buddha)들도 보였고, 동상들에게 노란 매끼 칠을 해서 어디서나 잘 눈에 띄려고 변색시켰다. 발리의 관광 산업은 20여년이 넘게 광고하고, 노력한 보람이 있어 지금은 하루에 175대의 큰 비행기가 각국에서 관광객을 모셔오고 있으며, 웬만한 호텔들은 거의 다 짜차 있단다.

코모도섬(Komodo Island)에 가까이 오자 이곳은 항구가 없는 곳이라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는 정착을 했고, 우리들은 다음 날 작은 배(Tender)로 거의 30분을 달려서야 육지에 다다를 수가 있었다.



배에서 내리자 내 키 크기의 작은 코모도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고, 배에서 막 내린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생각 보다는 빨리 숲으로 사라졌다. 안내들은 내 팔뚝만한 2미터 정도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Y’자 모양이었으며 코모도들이 가까이 오면 그 막대기로 목을 누른다고 했다. 심어명색 2마일 정도의 숲속을 걸으면서 그들을 찾아 보았는데 우리는 가장 앞에서 가던 팀이라 작은 것 두마리가 나와서 오슬글을 지나 숲속으로 들어 가는 것을 보았다. 좀 넓은 광장으로 나오니 열마리 정도가 물을 먹거나 먹으러 가고 있었다. 공룡들은 길고 긴 혀바닥을 자주 날름거렸다.

공룡들은 한달에 한번씩 먹고 배가 고프면 물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물소들을 물던 2-3일 후에 온 몸에 독이 퍼져 물소들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6마일 밖에서도 피 냄새를 맡은 공룡들이 다 몰려들어 소 한마리를 거뜬히 먹어 친다. 옛날에는 닭을 먹고있던 원주민들의 집은 2-3미터의 땅위에 말뚝을 박고 짓는 것도 그들의 침범을 막기위한 것이라는 짐작도 갔다. 코모도는 과장해서 전전이 되었고 이 섬에 단것은 불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인도네시아는 모슬렘(Moslem)국가로 세계에서 회교도인의 수가 가장 많고 (88%) 거의가 수니(Sunni)인데, 이들은 착하고 양심해 보였고 가끔 보는 회교도인들의 과격한 성격같은 것은 상상하기 <2 of 3, 계속>

동문들이 사는 이야기: 김경희(가정대 71) 지적발달 장애인 제니의 그림 이야기

제니(56세)는 화가이다. 누가 부모인지도 모르고, 형제 자매도 없다. 혈혈단신 고아인 제니.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남의 집에 입양되어 자랐다. 백인 양부모가 훌륭한 사람이었다. 제니 외에도 여러명의 자녀들을 백인 흑인 가리지 않고 입양해서 키웠다. 그 양부모들이 세상을 떠나고 제니는 다시 갈 곳이 없어졌다.



속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속하기도 한다.

제니가 가진 재능이 그림그리기다. 말도 거의 못하고

얼굴의 표정과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는 제니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하루 종일 한자리에 앉아 꼼꼼히 그림을 그린다. 적당히 칸을 만들고 그 빈 칸을 마음에 드는 대로 색칠을 하고, 몇 가지 쓸 수 있는 알파벳과 간단한 단어를 그려 넣는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은 사람들에게 느낌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그림은 아름답다. 'As Many as I Can'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녀의 그림, 형형색색의 색깔들이 묘하게 어울리며 보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호소를 하고 있다. 제니는 '사각형 위에 또 하나의 사각형이 쌓여 그림이 이루어진다. 나에게도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보다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즐겁고 재미가 있어요.' 라고 스테프를 통해 말한다.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Woodmere Art Museum(http://woodmereartmuseum.org/)에서 금년 여름 6/27-9/7일까지 열리고 있는 제74회 공모전에 제니의 그림이 뽑혀 전시 중이다. 사진은 제니(우측)와 그의 하우스메이트 아이리스, 그들을 돌보는 상주직원 중 한명인 다나, 그리고 30년 넘게 이들을 돌보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 Support Coordinator, 김경희(가정대 71) 동문이다.

이중호의 풍향계 부원배와 친일파 - 빌붙어 살던 그들은 지금도...

뜨거운 한 주일이 지났다. 날도 뜨겁고 광복 70년 축하 물결도 뜨거웠다. 극장에서 독립군의 활약과 친일파 응징을 그린 영화 '암살'이 관객 1100만을 돌파했다. 인터넷에선 친일 청산 실패에 대한 성토와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반면 친일파 후손들은 대를 물려 명명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특집 기사였다.

700년 전 고려 때도 그랬다. 13세기 초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받았다. 한두 번이 아닌 무려 일곱 번에 걸친 대침략이었다. 고려는 강화도로 조정을 옮겨가며,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불력(佛力)에 호소해 가며 저항했다. 산별초를 비롯해 온 백성들이 목숨 내놓고 싸웠다. 하지만



▲ 영화 '암살' 주인공들. 왼쪽부터 하정우, 전지현, 이정재. LA에서도 상영 중이다. 처절했던 독립운동사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영화다. 현실에서 청산하지 못한 친일 유물의 역사를 상상으로나마 응징하는 후련함도 있다. 하지만 정의가 이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대적 대의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하며 사는 필부필부(匹夫匹婦)의 나약함을 확인하는 착잡함도 느끼게 한다.

역부족, 이미 세계제국이 된 몽골군의 말발굽 아래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장장 98년, 시시포폴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다.

당장 영토부터 빼앗겼다. 평안도 지역에 동녕부, 함경남도에도 쌍성총관부, 제주도에 탐라총관부가 세워져 원나라 직할지가 됐다. 임금 이름도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의 충(忠)자를 붙여야 했다. 충렬왕-충선왕-충숙왕-충혜왕-충목왕-충정왕 6대 70년 가까이 그랬다.

왕실 용어도 제후국 수준으로 격하됐다. 집(朕)이 고(孤)나 과인(寡人)으로, 폐하가 전하로, 태자가 세자로, 직서가 교서로 바뀌었다. 세자는 왕이 되기 전에 원나라에 불모로 가야했고 몽골 여인을 왕비로 맞아야 했다. 젊은 처녀가 공녀로 바쳐졌고 몽골인들이 제집 드나들 듯 고

려를 드나들었다. 이렇게 풍습이 바뀌고 언어가 물들었다. 피가 섞이고 민족정신도 희미해져 갔다. 일제 36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런 세월을 되돌려 바로 잡으려 한 사람이 공민왕(재위 1351~1374)이다. 그의 꿈은 '자주 고려'였다. 이를 위해 기철 등 친원세력부터 척결했다. 원나라 풍습과 제도를 철저히 금했다. 철령 이북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빼앗긴 땅도 되찾았다.

하지만 개혁은 벽에 부딪혔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부원배(附元輩)들의 필사적 저항 때문이었다. 결국 개혁은 실패했다. 공민왕은 좌절했고 고려는 멸망의 길로 내닫고 말았다. 그럼에도 부원배는 건재했다. 권문세족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영화를 누렸다.

역사는 되풀이됐다. 36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던 날, 모두가 새 나라를 꿈꿨다. 그 첫걸음이 민족반역자 처단이었다. 이를 위해 제헌국회에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금세 흐지부지됐다. 분단이 빚게였다. 친일청산보다 좌익정체가 발등의 불이 됐다. 친일 전력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의 경험이 요긴한 무기가 됐다. 결과적으로 친일파 대부분이 신생 대한민국의 중추세력으로 다시 편입됐다. 그리고 그 아들, 손자들이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직장 물려받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고 있다.

친일의 역사는 분명히 기억돼야 한다. 7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가도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번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 잡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다. 더 결정적인 것은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정치계, 법조계, 재계, 언론계의 내로라하는 사람(기업)치고 친일 선조의 후광을 입지 않은 이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솔직히 한국은 더 이상 친일청산을 해 낼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다.

부원배는 '원나라에 빌붙어 사는 놈들'이라는 모욕적인 말이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새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 말은 사라졌다. 그렇다고 그 후손들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태종 이방원의 시조에 나오는 구절 그대로 '만수산 드령 칠갈이 얽혀' 조선의 지도층으로 대부분 수평



▲ 고려 공민왕이 회복한 영토. 그 뒤 함경북도 쪽은 조선 세종대왕 때 가서야 되찾았다.

이동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도태되지 않고 이름만 바뀌어 살아남는 지배층의 끈질긴 생명력이었다.

친일파도 그렇다. 친일-우익-보수로 이어지는 줄을 타고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일제 식민지 상층부에서 대한민국 상층부로 아주 성공적으로(?) 이동했다. 이제 '친일파 후손'이라는 수치스러운 딱지 떨어내는 일만 남았다. 모르긴 해도 저들은 머지 않아 그것마저 기어코 이뤄낼 것이다. 우린 한 배를 탔다. 자칫 소모적인 친일청산 논쟁만 하다보면 배 자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 앞에 순박한 민초들이 먼저 물러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재차 말하지만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과거 역사까지 없었던 걸로 할 수는 없다. 부원배 청산에 실패한 고려는 끝내 망했다. 이 시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교훈이 아닐 수 없다. (2015.8.18) <이중호(동양사 81, 언론인), 아크로폴리스 타임즈>

스탠포드대, 이 남자에게 2,000억 원 투자한다



▲ BOBBY YIP/REUTERS 장례이 할하우스 캐피탈 매니저먼트 그룹 회장 겸 CEO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인 장례이는 예일, 프린스턴 등 엘리트 대학들의 기부금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모았다. 이제 스탠포드까지 그 대열에 합류해 약 2억 달러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로써 18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장례이의 할하우스 캐피탈 그룹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0개 대학 중 최소 6곳을 위해 돈을 투자하게 된다.

장기 투자와 명성을 이유로 인기가 많은 투자자인 대학 투자팀들이 장례이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장례이는 아시아와 해외에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며 비밀 엄수로 유명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회사 텐센트 홀딩스에 대규모의 초기 투자를 하는 등 중국 IT 기업 투자로 잇따라 성공을 거두면서 중국 최고의 투자자들 중 하나로 자리를 굳혔다. 할하우스와 스탠포드 관계자들은 투자 활동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다. 장례

이에게서는 코멘트를 받을 수 없었다. 장례이와 IT 분야의 인연은 깊다. 소식통에 따르면 잭 마 알리바바 회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할하우스 연례 투자자 미팅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장례이를 잘 알고 있는 스티븐 로치 전 모건스탠리 아시아사업 회장은 "그는 투자업에서 드문 사람"이라며 "그는 시장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는다. 시장이 침체되면 그것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본다"고 말했다.

한때 예일대학교 투자팀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장례이는 10년 전 예일의 투자책임자인 데이비드 스웬슨으로부터 2,000만 달러를 받아 회사를 시작했다. 스웬슨은 예일의 돈을 30년 간 관리했으며 주식, 채권보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선호하는 독특한 전략을 개척한 인물이다.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의 제자들이 현재 미국 최대의 대학 기부금 중 일부를 운영하고 있다.

장례이는 예일에서 일하던 시절을 매우 좋아한 나머지 예일대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두 블록 길이의 길 이름을 따 회사 이름을 지었다. 장례이는 예일대에서 대학원 생활을 할 때 스웬슨의 2000년도 저서 '포트폴리오 성공 운용'을 중국어로 번역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영어 단어 '기부금(endowment)'과 '수탁자(fiduciary)'에 해당하는 중국어를 만들어야 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2010년 그는 예일대 비즈니스스쿨에 888만 8,888달러

를 기부했다. 8은 중국 문화에서 좋은 운을 가져다준다고 여겨지는 숫자다. 이는 졸업생 기부금 중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할하우스의 대학 투자자 중에는 프린스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펜실베이니아대학교, 텍사스대학교 시스템 등이 있다. 텍사스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기부금은 모두 스웬슨의 전 부하직원들이 이끌고 있다. 스탠포드 기부금 책임자 로버트 윌리슨도 장례이처럼 예일대를 졸업해 스웬슨 밑에서 일을 시작했다.

할하우스는 투자 성적을 거의 공개하지 않지만 장기간 투자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단기 투자 문화와는 다른 스타일이다. 예를 들어 중국 온라인 소매업

이다. 위의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블로그 글을 올리고 웨스트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한 컬럼비아 MBA 학생 펜종(31)은 "내가 그에게서 얻은 한 가지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이라며 "그것이 그가 투자 기회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묻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인내심은 최근 중국 주식 폭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부 투자에서 시련에 들었다. JD.com 주식은 6월 초 사상 최고를 기록한 후 28% 하락했다.

할하우스에 투자하기로 한 스탠포드의 결정은 윌리슨이 처음으로 내린 중요한 결정 중 하나다. 그는 지난 5월 미국에서 4번째로 큰 기부금인 스탠포드 기부금을 맡게 된 이후 재빨리 변화를 도입하고 있

예일, 프린스턴, MIT, UPENN, 텍사스대 등 투자 연이어...

체 JD.com에 대한 5년 간의 투자는 그 가치가 15배 이상 올라 40억 달러를 넘었다. JD.com은 지난해 미국에 상장됐다.

할하우스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회사들 몇몇에도 지분을 갖고 있다. 올해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차량공유 회사 우버 테크놀로지나 전환사채 계약을 이끌었고, 속도 임대 서비스 에어비앤비의 최근 투자 라운드에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장례이는 지난 4월 컬럼비아대 비즈니스스쿨 학생들 앞에서 할하우스는 때로 1년에 새로운 포지션을 하나만 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 학생이 전했다. 몇몇 관찰자들은 할하우스에서 스웬슨의 영향이 두드러짐을 발견했다. 바로 예일 방식의 옹호자들처럼 투자에 대해 인내심 있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

다. 지난날 윌리슨이 기부금 전략을 예일 방식으로 바꾸면서 여러 명의 고위급 관리자들이 떠났다. 예일 방식에서는 외부 자산관리사를 줄이고 남아있는 외부 회사 중 선별된 곳에 투자 규모를 늘린다. 스탠포드 관계자는 리더가 바뀌면 직원들이 떠나는 일은 흔하다고 말했다.

윌리슨은 이미 최소 2명의 고위급 관리자들을 고용했다. 이들은 예일과 런던 투자 회사 알타어드바이저에서 그와 친분이 있던 인물들이다. 알타는 윌리슨이 2005년 예일을 떠난 뒤 CEO로 일했던 곳으로, 그곳의 2인자였던 그렉 밀라니, 예일을 졸업하고 콘래드 N. 힐튼 재단에서 스웬슨의 대역을 했던 제이 강이 채용됐다. 스탠포드 관계자는 밀라니와 강의 채용 사실을 밝혔다. <WSJ>

인간의 지능, 나이 들면 어떻게 달라질까?

'나이들수록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괜한 소리일까? 우리 주위엔 60살이 되어서도 20살 때처럼 어리석은 사람, 혹은 젊은 시절의 영민함이 나이와 함께 처참히 퇴색해버린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가 하면 만년필 세대이면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고령자도 많다.

MIT 조슈아 하트슨 박사는 숫자나 이름, 팩트 등을 흡수해 재구성하는 정보처리 속도는 18세에 꼭짓점을 찍은 후 급격히 둔화된다고 말한다. 정보를 저장하고 조작하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 능력은 20대 중반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35세때부터 쇠퇴한다. 이때는 정서 지능(EQ)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사진 속 사람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은 40세경 절정에 이르고 60세에 이르러 바래지기 시작한다. 어휘력 역시 계속 성장해 늦게는 70세에 최고조에 달하기도 한다.

"우리가 지능을 정의하는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사람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고무적인 징조가 아닐 수 없다. <WSJ>

HANIN FEDERAL CREDIT UNION
한인 연방 신협은행

★ Free Checking Account (Personal / Business)
일체의 수수료가 없으며 미니멈 발란스 유지 조건도 없습니다

- Certificate of Deposit (CD)
- Installment Savings
- Auto Loan
- Internet Banking
- Wire Service

“기존 은행 거래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은행 계좌 오픈이 힘든 분들도 친절하게 모십니다.”

www.haninfcu.org

FDIC와 같은 연방 정부 기관 NCUA Insurance Fund에서
예금주 1인당 \$250,000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LOS ANGELES
3700 Wilshire Blvd., Suite 104
Los Angeles, CA 90010
(213) 368-9000

SILICON VALLEY OFFICE
2368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0
Tel: (408) 260-0900

GARDEN GROVE
8942 Garden Grove Blvd., Suite 109A
Garden Grove, CA 92844
(714) 590-9910

참가 명복을 빕니다



김종선 (공대 60 졸업)

고 김종선(서울 공대 1960년 졸업) 동문님의 부고입니다.

부인께서 몇 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김 종선 동문님께서도 며 칠전에 갑자기 돌아가 셧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 니다. -김용주(서울대학교 시카고 동창회장)드림

Below please find a summary of my father's life. Jae Kim (son): jaekim34@gmail.com

Chong Sun Kim, son of Mr. Kyu Kim (father) and Mrs. Mong Hwa Lee (mother), was born on November 15, 1938, in the city of Kyung-sung-kun, located in the Hambuk province of

North Korea. In 1947, his family moved south following the liberation of Korea. He attended Kyunggi High School in Seoul, widely considered the best secondary school in all of Korea.

As a junior at Kyunggi, he passed the entrance exam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Engineering, bypassing his senior year and heading to college one year early. Upon gradu- ating from Seoul National in March of 1960, he worked for one year at Samsung and then fulfilled his required one year of military service in June 1962. Chong earned a government scholar- ship to attend graduate school, and from 1962 to 1966, he attended the University of Stutt- gart in Germany, where he earned his Maste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In June of 1967, he began studying for his Ph.D., at the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On June 15, 1968, he married Sung Won Moon in Brooklyn, New York. Chong and Sung Won

returned to Vienna, and their first child Jae was born in May of 1969. Chong earned his Ph.D. in March of 1970 and he, Sung Won and Jae im- migrated to the U.S. in June of 1970. They spent a few months in New Jersey before eventually settling in the northwest suburbs of Chicago in the fall of 1970. Their second child, Christine, was born in July 1973.

Over the span of his 30+ year career, he spent four years at the architectural design firm Skid- more, Owings & Merrill and nearly twenty years at Argonne National Laboratory. In his spare time, he enjoyed playing and watching golf and was an avid Chicago sports fan. He also loved swimming and swam five days a week, with his last swim coming last Thursday August 20th. He was a black belt in taekwondo and spoke three languages fluently (English, Korean and German). More importantly, he was a devoted husband, a loving father and an adoring grand- father.



김익창 (85세, 의대)

새크라멘토와 데이 비스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신과의사, UC 데이비스 임상교수로 일하면서 한인사회에 도 헌신적 봉사를 아 까지 않았던 김익창(영어명 Luke Kim)박 사가 지난 7월 12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후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고인은 1969년부터 북가주 베이커빌 주교도소 주임 정신 과의사로 일하면서 UC데이비스 의대 임상교수를 역임했다.

김익창박사는, 미국정신과학회 회원으로 활동하 는 한편 미주 한인정신과의사협회를 창설했다. 특 히 아시아 이민자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여러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이철수 구명운동에도 참여했던 김박사는 부인 그 레이스 김 여사가 새크라멘토 한인회장을 맡아 활 동할 때도 외조를 아끼지 않았다.

2006년 정년 은퇴한 후 "The Luke and Grace

Kim 재단"을 만들어 상당한 재원을 UC데이비스 의 대에 기부, 다양한 인종의 문화와 관련한 정신의학 연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했다.

일찍이 김박사는 흥남철수작전시 현봉학박사와 같은 배를 타고 통역관으로 일을 했다. 그 전, 그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6.25가 발발했다. 부산으로 피난간 그는 학업을 중 단하고 해군에 입대해 의사들을 도우며 부상병들을 치료했다.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고 신의주까지 쳐들어갔을 때 통역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는 군 비행기 타고 함흥에 내려왔다. 함흥 도착 후 얼마 안있어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왔다. 미군 은 많은 피해를 입으며 철수작전에 들어가 흥남에 집결했다. 김박사가 현봉학박사를 만난 곳도 바로 흥남이었다. 부두에는 미군 10만명과 피난민 10만 명이 북적이고 있었고 200여척의 군함과 수송선이 군인과 장비를 싣고 있었다.

대부분의 군 수뇌들은 부두의 피난민들을 적군의 사람들이라 판단하고 적대시했다. 그 때 현봉학 박 사가 통역중위로서 적수상관인 알몬드 장군에게 피 난민 살려줄 것을 간청하는 장면을 김박사는 옆에 서 목격했다.

"저 피난민들은 공산당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왔 을 때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 환영한 사람들이기 때

문에 우리가 두고가면 모두 다 총살당할 것입니다"

이런 피를 토하는 듯한 간청을 한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는 것을 보았다. 드디어 알몬드 장군이 O.K.하 는 감격적인 순간에도 그는 현박사와 같이 있었다. 그 O.K.가 떨어지자 이미 배에 적재했던 장비는 도 로 부두에 내려지고 피난민들의 자리가 마련되었 다. 10만 생명이 구조되는 순간이었다.

그 밖에도 6.25 전쟁에 관해서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는 말년을 회고록 집필하는 일에 전력을 쏟 았다. 그 노구로 하루에도 10시간 이상을 컴퓨터 작 업을 하느라 자세가 나빠져 머리가 앞으로 구부러 졌다고 부인되시는 그레이스 김씨가 전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같은 영락교회에 다니 고 있는 부인 그레이스씨와 결혼했는데 마침 둘이 다 서울대 학생이었다. 그러나 정작 서로 만나 교제 하기 시작한 것은 연세대 주관 기독교학생회에서였다고 한다. 약 1년간 교제하고 미국에 유학와서 심리 학을 전공했다. 졸업한 1962년에는 한국에 그런 일 을 할 자리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미국에 정착하기 로 결정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그레이스 김여사와 장남인 연 방정부 교통부 데이빗 김 차관보등 두 아들과 며느 리, 4명의 손주가 있다.

<동문들의 슬픈 소식을 함께 나누습니다>

- 1. 고인의 성명, 사진, 소속 대학, 입학 년도 / 2. 주거 도시 (지부) / 3. 유가족 소식, 친구의 추모의 글 등 (연락처) / 4. 고인의 생전 이야기, 취미 등을 news@snuua.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비·광고 및 업소룩비·기타 후원 동문 (2015.7 ~ 2016.6)

동창회비:	김순자(치대 57)	이영일(문리 53)	권철수(의대 68)	전영자(미대 58)	최혜숙(의대 53)	김영철(의대 55)	이성구(약대 56)	김국간(치대 64)	허창기(약대 67)
	김창무(음대 53)	이월택(의대 65)	김영기(공대 73)	정진목(의대 50)	함성택(문리 55)	김완주(의대 54)	이영숙(간호 56)	김부형(약대 63)	현명역(공대 75)
Alaska	나성욱(문리 59)	이정옥(가정 71)	김창호(법대 56)	조동진(공대 69)	Michigan	김용술(상과 56)	이재원(법대 60)	김영우(공대 55)	황선희(공대 74)
	윤제중(?)	노영준(문리 48)	이종효(간호 69)	도상철(의대 63)		김용연(문리 63)	이전구(농대 60)	김정현(공대 68)	안세현(의대 62)
	하인환(공대 56)	문인일(공대 51)	이중희(공대 53)	석균범(문리 61)	Georgia	김국화(공대 56)	김정은(의대 77)	이종환(법대 51)	Rocky Mt.
	Arizona	민병곤(공대 65)	이창무(54)	오광동(공대 52)		김현중(의대 77)	김정은(의대 77)	이한수(의대 55)	김현중(공대 56)
		백상세(약대 48)	박노면(사대 50)	임동호(약대 55)	Hawaii	김현중(공대 63)	최병두(의대 52)	김현중(공대 63)	박정중(공대 87)
		유기석(문리 60)	박필준(공대 65)	임문빈(공대 58)		문석면(의대 52)	왕규현(의대 56)	최정창(간호 45)	손재욱(가정 77)
		지영환(의대 59)	박인수(농대 64)	임화식(치대 59)	Heartland	민준기(공대 59)	조아미(음대 61)	송영두(의대 56)	유광현(문리 58)
		백상세(약대 48)	박찬호(농대 63)	장 준(인문 85)		김영남(사법 53)	조종수(공대 64)	신상재(수의 59)	Tennessee
		김재호(의대 57)	박취서(약대 60)	정동구(공대 57)	Illinois	성옥진(치대 87)	차국만(상대 56)	신상식(공대 56)	김경덕(공대 75)
		강정수(문리 61)	배동완(공대 65)	김내도(공대 62)		송창원(문리 53)	박순영(법대 56)	이상봉(의대 90)	Texas
		강정훈(미대 56)	배병욱(음대 58)	김영기(공대 73)	Nevada	이상강(의대 70)	박은규(약대 72)	오진석(치대 56)	김기준(공대 61)
		강중경(공대 48)	백소진(문리 55)	정현진(간호 68)		김영민(의대)	박진우(상대 77)	윤경숙(문리 59)	김태훈(공대 57)
		강희창(공대 57)	손학식(상대 60)	정 황(공대 64)	New England	김영화(문리 62)	박현성(약대 60)	한태진(의대 58)	신달수(공대 59)
		고영순(음대 59)	성낙호(치대 63)	조만연(상대 58)		김화영(문리 50)	김민소(수의 61)	허유선(가정 83)	이성숙(가정 74)
		권기상(경영 72)	안병일(의대 63)	주정래(상과 65)	Ohio	고병철(법대 55)	김선혁(약대 59)	이규호(공대 56)	이지영(문리 67)
		권오형(사대 61)	양승문(공대 65)	최경선(농대 65)	NJ & NY & RI	김갑중(의대 57)	김동광(공대 62)	전방남(상대 73)	이길영(문리 59)
		김계윤(의대 57)	양승현(미대 61)	최왕욱(공대 69)		김규호(의대 58)	김용순(사대 60)	최희진(의대 54)	진기주(상과 60)
		김광은(음대 56)	양창효(상대 54)	최용완(공대 57)		이덕수(문리 58)	안재현(상대 60)	최영준(상과 63)	최성호(문리 58)
		김교복(농대 63)	윤경민(법대 55)	한만섭(공대 47)	Florida	이상우(문리 61)	양명자(사대 63)	정학량(약대 56)	Utah
		김동호(농대 58)	이문상(공대 62)	현순일(문리 58)		김문경(약대 61)	염극용(의대 54)	정홍택(상과 61)	김인기(문리 58)
		김병호(상과 57)	이방기(농대 59)	이범세(의대 59)	Virginia	이영모(의대 53)	김봉철(공대 60)	조영호(음대 56)	Washington
		김석홍(법대 59)	이성숙(공대 56)	DC & MD & VA		이성모(의대 53)	우상영(상과 55)	한국남(공대 57)	이동림(의대 52)
		김선기(법대 59)	이소희(의대 61)	강도호(사회 81)		이정철(공대 55)	이강홍(상과 60)	한영준(사대 60)	
		김순길(법대 54)	이양구(상대 57)	권오근(상과 58)		조봉완(법대 53)	이경태(공대 63)	차호순(문리 60)	
						조형원(약대 50)	김민예(사대 56)	최현태(문리 62)	

후원회비:	이강홍(상대 60) 500	Virginia	서윤석(의대 62) 200	디자인 광고:	김광호(문리 62) 3000
	Ohio		최인갑(공대 57) 200		김혜정(문리 82) 600
Arizona	박양세(약대 48) 200	Oregon	김상순(상대 67) 200	Golf 후원금:	유재환(상대 67) 1000
California	강정수(문리 61) 200	Pennsylvania	김국간(치대 64) 200		윤상래(수의 62) 400
	양승문(공대 65) 200		김종휘(약대 54) 200	업소룩 광고:	임낙균(약대 64) 1500
Colorado	송요준(의대 64) 200		전방남(상대 73) 100		이승훈(상대 74) 1,800
Maryland	권철수(의대 68) 200		지흥민(수의 61) 200	Website 광고:	
	NJ & NY		김명철(공대 60) 200		김혜정(문리 82) 500
			민준기(공대 59) 200		K-Shopping 500
			김정현(의대 56) 260		
			손재욱(가정 77) 20,000		
			Texas		
			진기주(상대 60) 200		

제13대 회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1년 75불)와 각종 후원금으로 동창회보가 발행되며 미주동창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와 각종 후원금은 모두 다음의 IRS Tax Exempt 번호로 감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Federal TIN: 13-3859506

*주소: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문의: 484-344-5500 Ext. 304)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성명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입학연도 :	
주소 :	전 주소 :			
업소 이름 :	업소 주소 :			
전화 :	Email :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룩 광고비	일반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연 \$200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5.7~2016.6)	<input type="checkbox"/> \$240 (2015.7~2016.6)	<input type="checkbox"/> 명함크기 (3.5"x 2") \$100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연 \$500			<input type="checkbox"/> 1/6면 (5"x 4.5") \$200	<input type="checkbox"/> 모교 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연 \$1,000			<input type="checkbox"/> 1/3면 (10"x 4.5") \$400	<input type="checkbox"/> 종신 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1/2면 (10"x 7") \$600	
			<input type="checkbox"/> 전면 (10"x 14") \$1,000	
			<input type="checkbox"/> 전면 (Back 10" x14") \$1,500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ua.org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484-344-5500 Ext 304 로() or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	Date :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문의는 전화
(484) 344-5500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Tel.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 kangdon@att.net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신대식 (상대 60)
Tel.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옥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 (상대 81)
Tel. (714) 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 (상대 56)
Tel.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치과

배운범 치과
배운범 (치대 69)
Tel. (213) 385-1233
3540 Wilshire Bl. LA, CA 90010
michaelyoonbae@gmail.com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Tel. (562) 692-0600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 클리닉

Teamspirat Realty
Jennie Lee 이종묘(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lee@gmail.com

리테일러 / 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Tel. (213) 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공률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612) 418-5393
P.O. 7416 Beaverton, OR 97007

광고문의는 전화
(484) 344-5500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Green Hills Memorial Park Garden of Reflection에 있는 가장 좋은 Family Place 대리석 있는 개인 소유 묘지 판매

1)Family Estate 925 Space-A, B(side by side 2자리) 5만불, 2)Family Estate 926 Space.932.933.934 (8자리 더 있음) 현시가 7만불 이상을 5만불에 팝니다.
*연락처: (818) 395-1967
*E-mail: opk377@yahoo.com

Young Tai Choi E.A.

최영태 (문리 67)
Tel. (212) 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건축 /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Tel. (347) 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MD-VA-워싱턴 DC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Drivetech, Inc

임달용 (공대 69)
Tel. (703) 327-2797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350,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록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원/고/모/집/합/니/다

동문들과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 쓰는 분도 보람있고 독자들에게도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원합니다. 장르는 시, 수필, 평론, 콩트 등의 창작품, 미술, 음악, 영화, 공연예술, 독서, 여행, 역사, 철학, 종교 등 다양합니다. 여름 휴가 에피소드도 원합니다. 그리고 살고 계신 지역의 명소를 소개해 주십시오. <독자의 광장>에 들어갈 회보에 대한 소감이나 제안을 보내주세요.

건강, 의/약학/간호학, 아동, 노인, 가정, 은퇴재정, 세무, 법률 등의 상담질문도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로부터의 답변이나 칼럼도 신중합니다. 가능한 한 글자수 2500자, 또는 단어수 700자 내로 해 주십시오(사진이 들어가는 경우, 더 짧게). 부득이한 경우 조금 더 길어도 됩니다. 이 경우 회지 지면 형편에 따라 다음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워드나 한글로 쓰시고 첨부파일로 보내주세요.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 편집후기 ■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메일 주소를
(general@snuua.org)로
보내주세요.

이제는 아주 진부(陳腐)한 표현이 되어 버렸지만... 한때 "드디어 冷戰의 시대가 끝났다!" 라는 말이 유행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냉담과 무관심의 시대가 끝나고, 화기에애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이리라.

동창회에 무관심하기만 하였던 내가, 동창회보의 편집에 직접 관여(參與)하여 보니... 전에 없었던 백일몽 같은 바람(望)이 나에게 생기기 되었다...

그것은, 바로, "동창회보에 대한 무관심의 시대는 거(去)하고, 적극적인 참여의 시대가 래(來) 하였노라!" 라는, 회원님들의 합성과 지원(支援)이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바람(望)이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바람이 아니고...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편집위원



들의 소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창회원님들! 제발 저희들의 바람(望)을 저버리지 마시옵소서!

<이상봉 편집위원>

올해 여름은 그야말로 장엄한 여름(Epic Summer)이었다.

6월 18일 주말에 필라델피아에서 역사적인 평의원회의가 개최되었고, 자체적인 신문발행의 과제가 발등에 떨어진 지가 무섭게 일사불란하게 팀워크를 이루어 이미 두차례 신문이 발송되었다. 다음주에는 9월호 회보가 마지막 마무리를 마친 후, 인쇄소에 보내지게 된다.

어느집에 불이 나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고 몰려들었다. 한 신참 소방관은 불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하면서, 신발끈을 매었다 풀었다 하든지, 혹은 주위를 정돈한다고 빗자루를 들고 랜시리 마당을 쓸며 부산을 털었다.

지난 3개월을 돌아보니 순회장님과 김편집장님, 주필님 이하 편집위원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고 애쓰실 때 나는 이 신참 소방소원같이, 신문발행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는 나의 개인삶이 자녀들로 인하여 어느 다른 여름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7월신문 발행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을 때 독일에서 아들

을 낳아, 자랑스럽게 친정에 온 큰딸가족과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지난 몇주 사이에 아들은 대학졸업 후 직장잡아 VA로 이사했고 막내딸은 대학입학으로 집을 떠나 우리 가정은 Empty Nest가 되었다. 아이들의 삶은 멋지게 펼쳐지는데 문제는 나다. 자녀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새로운 자제와 태도가 필요함을 느끼는 이 시점에서 순회장님과 오랜 인연으로 동창회를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은 축복이다. 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Opportunity is like a balloon. If you don't catch it, it flies away' 이니까. <이성숙 편집위원>

노동절 특집호를 만드는데, 적절한 논설이 없다. 주위에 마땅히 부탁할 동문도 찾아지지 않는다. 편집을 시작해야 하는데 동문들로부터의 원고가 다섯개 밖에 들어온 게 없다. 안타까운 마음 가득한 채 9월호를 내어 놓는다. 논설위원들 한분 한분의 전문분야나 성향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동창회 일에 일천(日淺)한 내가 이런 중책을 맡았으니, 문제점에 틀림없다. 동문님들의 많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편집인>

서울대 미주 동창회 조직 임원단

제13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승영(문) · 김은중(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욱(가정)

- 차기 회장 | 윤상래(수의)
- 후원회 부회장 | 제영혜(가정)
-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하용출(문)
-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황선희(공)
- 고문 |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임원

- 사무총장 | 차임경(가정) | 사업국장 | 한중희(공)
- 총무국장 | 심희진(음) | 섭외국장 | 박형준(공)
- 조직국장 | 백옥자(음) | 특별사업국장 | 허유선(가정)
- 재무국장 | 이상숙(가정) | IT개발위원장 | 김원영(미)

회보 임원

- 발행인 | 손재욱(가정)
- 주필 | 정홍택(상)
- 편집위원장 | 김정현(공)
- 편집/디자인 | 승보현
- 편집위원 | 김상돈(공) · 김진우(공) · 심희진(음) · 이상봉(문)
이상숙(가정) · 정덕준(상) · 정태광(공) · 지재원(사)
차임경(가정) · 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역(공)
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 Webmaster | 김원영(미)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 논설위원 |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
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완(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 한재은(의)
- 위원 |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중민(공)
이강원(공) · 이민연(법) · 함은선(음)

인선위원회

손재욱(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오인환(위원장, 직전회장)
+ 4명 미정

모교 발전 기금 위원회

손재욱(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오인환(위원장, 직전회장)
+ 4명 미정

감사

주기록(수의) · 박영철(농)

*편집 / 디자인 : 승보현
*인쇄 : TN Printing, Lehigh, PA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회장	박혜옥(간호 69)	818.606.6503	jennypaek2@gmail.com	Feb-Feb
	차기회장	김병연(공대 68)	213.923.0907	byeongk@gmail.com	
북가주	회장	임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종수(공대 74)	484.480.0506	jskim0524@comcast.net	
뉴욕	회장	민준기(공대 59)	845.270.0451	joonmin1@yahoo.com	Jan-Dec
	차기회장	김도명(농대 70)	908.756.2042	dmkim516@g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이의인(공대 68)	781.862.5270	euinlee@verizon.net	Jul-Jun
	차기회장				
달라스	회장	오기영(공대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룩키마운틴스	회장	송요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me.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김주성(농대 83)	858.213.5666	cysuh727@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시카고	회장	김용주(공대 69)	630.235.9387	kimyongjo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정승규(공대)	773.562.0677	s_jung@att.net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 56)	520.271.2601	younhwan-oh@yahoo.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이상우(상대 72)	614.294.2453	rimshake@ameritech.net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	wonlee@qbmintl.com	Jan-Dec
	차기회장	임현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정경원(자연 83)	801.897.4060	kyungwan@mathradar.com	Jul-Jun
	차기회장				
조지아	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s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중부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회장	전방남(상대 73)	610.220.3461	jeonbana@gmail.com	Jul-Jun
	부회장	유영진(경영 85)	215.307.0001	xyy23yoo@gmail.com	
플로리다	회장	윤기향(법대 65)	561.962.5185	yuhn@fau.edu	Jul-Jun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회장	이상구(자연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차기회장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성낙일(해양 77)	217.508.8711	nsung@hawaii.edu	Jul-Jun
	차기회장	전수진(식공 89)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Jul-Jun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최인섭(공대 75)	713.952.8989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j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15th ANNIVERSARY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상대74)

정평희 (공대 71, 12대 사무총장)

Paul Chung, P.E.
President

GEOTECH ENGINEERS, INC.
11890-U Old Baltimore Pike, Beltsville, MD 20705
Tel.301.937.9227 / Fax.301.937.9189
Website : www.geotechengineersinc.com
E-mail : paulchung@geotechengineersinc.com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해정(82년, 문리대) www.duo.co.kr

좋은사랑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스페인인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듀오만의 핵심 프로그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베테랑 커플매니저 : 전문적이고 믿음 수 있는 커플매니저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회원감독 :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위한 경우, 2인 6천원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Hans Travel
hanstravel.com

Toll Free 1.800.963.4267, T. 703.658.1717, F. 703.658.3110, info@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Suite 102, Annandale, VA 22003

SNU 여행동아리와 함께 한 여행

1차: 2007년:지중해 크루즈 여행 2차: 2008년:이집트, 나일 크루즈
3차: 2009년: 네팔, 인도 여행 4차: 2010년: 러시아, 발틱 여행
5차: 2011년: 페루, 브라질 여행 6차: 2012년: 발칸 반도 여행
7차: 2013년: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8차: 2014년: 베네룩스 & 노르망디 프랑스
9차: 2015년: 실크로드를 따라서,우즈베키스탄 여행

2016년 10차 여행: 북스페인 맛기행 - 유럽의 키친, 스페인을 맛 본다 !!!
북스페인의 맛과 예술 문화 탐방 + 산티아고 순례길 (2016년 5월3일 - 5월12일 9박10일)
마드리드-살라망카-산티아고 순례길(3시간)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는 빌바오-산사바스티안-게르니카-소울이 축제 도시 팜플로나- 천재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고향 취게레스-바르셀로나

여행일자: 2016년 5월3일 - 5월12일 9박10일
여행경비: 미동부 \$3980.00/ 미중부 \$4080.00 / 미서부 \$4180.00 국제선 항공 포함.
포함사항: 국제선 항공,달력스 호텔, 특식및와인, 대형차량, 가이드, 입장료 /선착순 30명

한스와 함께하는 "단독여행"

2015년
-10/24-10/30 THE BEST OF CHINA 6박7일
황산(黄山)과 무릉도원 장가계(張家界)
-10/31-11/5 일본 북해도 단종과 온천 여행 5박6일
삿포로, 오타루, 하코다테, 노보리베츠, 삿포로

2016년
-1/11-1/22 PATAGONIA 파타고니아 여행 11박12일
찰레(찰라파테), 아르헨티나(우수아이아), 모레노
빙하, 토도글레시아, 부에노스아이레스)
-2/29-3/8 TURKEY,사도바울 전도 여행지 성지순례
이스탄불,가파도키아,파묵칼레,에베소 8박9일
-3/8-3/18 HOLY LAND & THE BEST OF JORDAN
이스라엘(예루살렘,사해,갈릴리)-요르단
(암만, 와디르,페트라, 제라쉬) 11박12일
-3/15-3/29 PERU & IGUASSU 14박15일
-3/21-3/29 PERU HIGHLIGHT 8박9일
아르헨티나+브라질, 페루(리마,마추피추,모라이,
이카사막, 파라카사, 나스카)
-4/4-4/13 AUSTRALIA & NEW ZEALAND 9박10일
호주, 뉴질랜드 남북선
-4/12-4/20 고급 맛여행 +음동, 흑산도 9박10일

“성장하는 기업”

25년간 세계 정상의 뷰티브랜드로 성장한 KISS
여러분과 함께 자녀세대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ISS®



김광호 (62) 신규천 (73) 한규상 (84) 김영훈 (93)

KISS®

KISS PRODUCTS, INC.,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